Entertainment p/20

인문학과 쿡방의 만남

메트로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제3191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1

KIA·롯데 '초반돌풍'

"세월호 선체 인양 5~6월 최적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영국ADUS사 현장조사

잠수투입 경험 고려·대형 크레인 동원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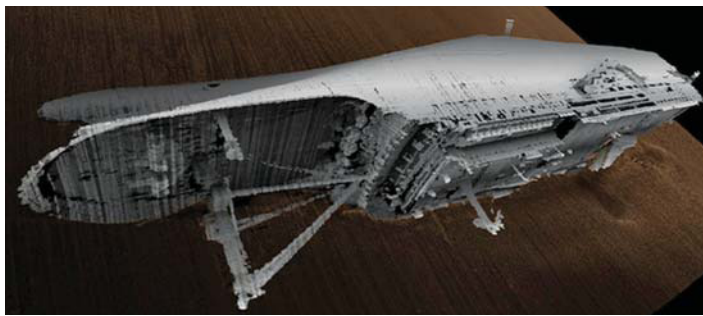
대체수역으로 선체 옮긴 후 인양 방안도 포함

지난달 23일 끝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영국ADUS사의 세월호 침몰현장 공동조사 결과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을 위한 최적기는 '5~6월'과 '9월 하순~10월 중순'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6일 정부가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제출한 '세월호 선체 정밀탐사 결과(요약)' 문건과 관련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용역을 맡은 공동조사기관은 대형크레인 등이 동원된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지난 수색구조 당시의 잠수투입 경험과 '파고 1m, 풍속 10m/s'라는 일반적인 잠수작업 가능환경도 고려됐다.

이 같은 조건 하에서 7~9월 중순까지는 태풍을 제외하면 비교적 해상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5~10월 사이 인양작업 환경이 양호하다는 결론이다.

반면 작업환경이 불량한 시기는 11~3월(2016년)이며 12월이 가장 불량한 시기로 조사됐다. 이때는 비교적 주기가 짧은 작업만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인양시기 평가에서 중요한 요인은 기상이었다. 사고 해역은 유속이 약해지는 전류(조류변화)시기가 하루에 네 번씩 약 60~90분간 지속으로 유지된다. 기상이 양호하다면 하루 평균 4~6시간 잠수작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음향영상 3차원 고해상 탐사를 통해 세월호의 상태가 확인됐다.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선체의 좌현(선수 방향 기준 배의 왼쪽)이 해저면에 내려 앉은 상태로 선수(뱃머리)가 약 53도 방향이다. /김우남 위원장실 제공

세월호 사고지점 주변해역의 해저환경은 인양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해저는 0.3도 이하의 매우 완만한 경사로 평탄한 지형이고, 세월호 선체 기준 반경 200m 내에 돌출암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보고서에는 세월호 침몰지점보다 수심이 낮은 곳(대체수역)으로 일단 선체를 옮겨 보다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도 포함됐다. 동거차도 인근 해역(침몰지점에서 북쪽으로 2.5㎞지점)은 보다 유속이 느려 비상시 대체해역 역할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세월호 선체에 대한 음향영상 3차원 고해상 탐사를 통한 세월호의 상태도 확인됐다. 세월호는 수심 약 44m 지점에 선체의 좌현(선수 방향 기준 배의 왼쪽)이 해저면에 내려 앉은 상태로 선수(뱃머리)가 약 53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설계도 상 선폭의 너비는 22m지만 정밀탐사 결과 약 21m로 확인돼 선체 좌현이 1~1.5m 가량 해저면에 묻혀 있다는 분석이다.

선체는 전반적으로 온전한 상태인 것으로 식별됐다. 하지만 침몰하면서 선미(배꼬리) 부분 좌현상단 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변형이 확인됐다. 선체가 전복된 상태로 침몰하면서 선미 부분이 해저면과 충돌했고, 좌현이 해저면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변형된 좌현 선미 부분은 선체 내 집기 등이 쌓여 지난 수색과정에서 수색을 못한 공간이다. 향후 선체 인양 시 집중적인 추가 수색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경찰에 연행되는 세월호 유족가족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의방문에 나선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朴대통령 "세월호 인양 적극 검토"

유승민 "고무되고 환영"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인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인양을 적극 요구해 온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지도부는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사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선체 인양에 대해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대통령 말씀에 굉장히 고무되고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세월호 인양 여부를 결정할 여론 수렴 방식에 대해 여론조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던 유 원내대표는 "여론조사는 정부가 중요 판단을 할 때 참고할 수는 있는데 이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라며 "세월호 인양과 같은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인천 서·강화을 현장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인양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인양을 국민의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고문진술 듣고도 '모르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수사때 조사도 안하고 넘어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6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당시 수사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당시 범인도피죄로 구속된 유정방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과장의 고문수사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차 수사(87년 5월 20일~28일)를 하며 1차 수사 (87년 1월 20일~23일) 당시 고문 경관으로 구속된 조한경 경위의 아내 김애순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김애순은 유정방이 김애순에게 자신이 일상적으로 고문 자행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김애순은 "유과장은 '조한경 그 놈은 내가 고문을 할 때도 자리를 피한다'고 하면서 '대공수사를 하려면 그런 일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가 유정방의 고문 개입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차 수사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5월 26일 명동성당 특별강연에서 수사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야당 역시 새로운 수사진에 의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사건은 대검 중앙수사부로 옮겨졌지만, 박 후보자 등 기존 수사팀은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남았다.

박 후보자가 김애순의 진술을 87년 5월 25일 받았기 때문에 중수부 수사팀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유정방을 조사할 수 있었다. 검찰은 2차 수사를 통해 '사건 조작·은폐'에 유정방이 개입했는지를 재수사하고 범인도피죄로 구속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범인도피 사건 축소·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유정방의 일상적인 고문수사 자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자 실체적 범인 은닉의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보루여야한다"며 "박 후보자의 척박한 고문감수성은 그가 대법관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경기자

4월, 北 '미사일 도발' 긴장

北 동해안 군사동향 분석 노동미사일 발사차량 식별
태양절·美 국방장관 방한에 시위성 도발 우려 목소리도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대해 기한없는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항행금지기간을 설정해 왔다.

4월 한 달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 미 국방장관의 방한, 개성공단 임금협의,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을 산발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1발, 3일 4발로 총 5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며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방한(9~11일)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최근 6년 北 미사일 도발 일지

날짜	내용
2009년 4월 5일	장거리로켓 은하 2호 발사
2012년 4월 13일	장거리로켓 은하 3호 발사
2014년 3월 28일	우리나라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3월 31일	북한 NLL선상에 포격실시
4월 3일	파주 삼척일대 무인기 정찰 시도
4월 29일	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 여객선 승객 351명 대피

도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이달 9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취임 후 첫 방한한다. 지난 2월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 논의 움직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도발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영토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즉시 맞받아나가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초토화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고 말 것"이라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 개성공단 임금협의도 한 요인

오는 10일 3월분 개성공단 임금 지급을 앞두고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도 첨예하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개발총국 간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5일 밝혔지만 갈등해결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남북 간 입장차가 커서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은 2013년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반발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이라는 카드를 쓴 적이 있다. 따라서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개성공단 임금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 북한 최대 명절 태양절

15일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이다. 지난해에 태양절 직후엔 군사적 도발행위가 없었지만 같은달 3일 파주 삼척일대에 북한 무인기로 정찰을 시도했다.

또 29일 NLL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을 훈련해 여객선 승객 351명을 대피한 적이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태양절 2일 전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바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中 '항모킬러' 핵잠 실전배치 임박

해군에 3척 인도 대기 중

중국이 '항공모함 킬러'로 알려진 최신형 핵잠수함을 조만간 실전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인민일보와 CCTV 등 중국 언론은 093G식 공격형 핵잠수함 3척이 건조돼 곧 중국 해군에 인도 후 실전 배치된다고 6일 보도했다.

CCTV는 앞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곳에 계류 중인 3척의 잠수함 위성사진을 공개, 이 잠수함이 최신형 093G 식으로 조선소에서 건조돼 해군에 인도 대기 중이라고 보도했다.

물방울(teardrop) 모양인 093G식 핵잠은 2세대인 기존의 093식보다 길어진 데다 미사일 수직발사대(VLS)를 장착했다. 특히 수중속도와 기동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려고 함미를 X자 모양의 날개 형태로 설계 제작했다. 사거리가 300㎞인 YJ-18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해 수상함과 항공모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1970년대 초부터 핵잠을 건조해왔으나 2009년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60주년 기념식에 두 척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핵잠 보유와 운영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4척의 094식 전략핵잠(SSBN)·6척의 093식 공격형 핵잠(SSN)·구형인 091식 공격형 핵잠(SSN) 3척 등을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일보는 해군 전문가의 말을 빌려 093G식처럼 최신형 핵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제작에 최신예 기술과 장비를 사용한 만큼 다른 어느 나라 핵잠에 비해서도 성능 면에서는 필적할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디자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093G식 잠수함은 강력한 대함·대잠 타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또 가까운 장래에 순항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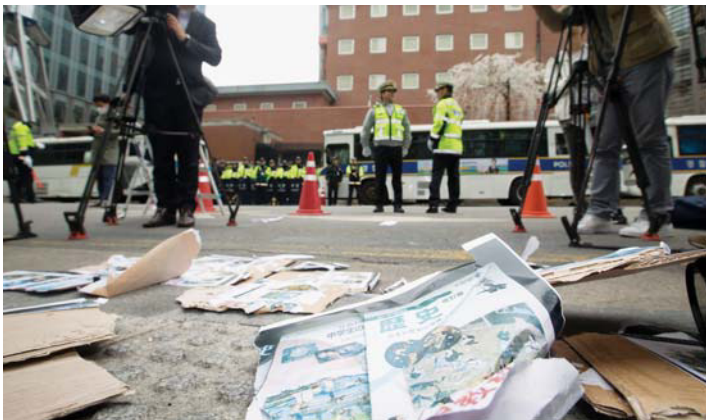
주한 일본대사, 한국정부 입장 경청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승인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초치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가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韓 '이승만 라인' 선포 후 일방적 독도 점유"

日 교과서 '불법점거' 서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일본 학생들은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공부하게 된다. 특히 교과서에는 한국의 '이승만 라인'을 상세히 소개했다. 독도에 대한 권리가 없는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논리다.

6일 일본의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교과서의 수가 늘어났고 독도 관련 기술의 강도도 높아졌다.

특히 교과서에는 에도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 '이승만 라인'설정 등이 상세히 실렸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으로 한반도 주변수역 50~100해리 범위인 배타적 경제 수역(EEZ)의 외측한계보다 안쪽에 있다. 독도 또한 라인 안쪽에 포함돼 있다. 한국이 '이승만 라인' 설정을 계기로 독도를 일방적으로 한국 영토로 선포하고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게 일본 측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이승만 라인'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독도가 일본 구역'이라는 주장을 구체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일본중학교 교과서 표지가 복사된 종이가 찢겨져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검정발표를 규탄하며 일본 역사교과서 표지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연합뉴스

이번 교과서에는 일본의 식민지 배와 침략에 대한 가해책임을 완화하거나 식민통치 정책을 미화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검정 결과도 있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경찰,군대,자경단에 의해 살해된 조선인이 수천명에 달했다'는 표현이 검정 후 '수천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숫자에 대해서는 통설이 없다'로 전면 수정됐다.

일부 교과서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 "근대화를 명목으로 했다"는 표현이 검정을 거쳐 "근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표현으로 수정됐다. '명목'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부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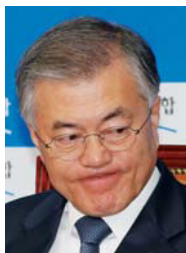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다수의 포로와 주민을 살해했다"는 기술 또한 "포로와 주민을 말려들게 해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는 표현으로 변경됐다. 수많은 사상자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 것처럼 표현이 수정된 것이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문재인 "국조, MB도 나와라"

자원외교 청문회 무산위기 文, 증인 수락… 여당 압박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는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는 조건으로 자신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제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좋다. 제가 나가겠다. 이 전 대통령도 나오십시오"라고 말했다.

7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차로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다. 증인채택에서 합의가 없으면 기한연장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 대표의 발언은 여당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해외자원개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 독려한 총책임자로서 국민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개최와 증인채택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자원개발 국조가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마감할 상황에 처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뵙기가 죄송하다"면서도 "책임은 이 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정경기자 jkljkl@

덕수궁길 점심시간 '문화축제'

6일부터 덕수궁길 점심시간 보행전용거리에서 요일별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5일 직장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는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덕수궁 대한문부터 정동교회 앞 원형 분수까지 310m 구간이다.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이곳에서 '문화가 있는 거리'를 주제로 예술공연이 열린다. 첫날인 6일에는 바리톤 노희섭의 공연과 바이올린, 클라리넷 연주가 있었다.

보행전용거리 공연에는 시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전자우편(realjihun@seoul.go.kr)으로 하면 된다.

매주 수요일에는 파라솔 테이블 15세트가 설치돼 야외에서 도시락을 즐길 수 있다.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15개 좌석 중 일부는 전자우편으로 미리 신청한 시민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장터가 열린다. 장터에서는 예술작품, 디자인공예품 등을 살 수 있다.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는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열린다.

비가 오면 당일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Lunch Time Culture Festival at Deoksugung Street from the 6th of April

Many events will be hosted throughout the week at Deoksugung Street walking path during lunch time starting on the 6th of this month.

Seoul stated on the 5th that this opening events is for office workers and tourists. Deoksugung Street walking path first opened in September last year. It is a 310 meter distance from Dae Han Gate to the Round Fountain in front of Jung Dong Church.

This is opened from 11:30 am for 2 hours on weekdays. Every Monday, there is an art performance with the theme of "Street with Culture".

The first day which is the 6th, there will be a performance by No Hee Sup(Baraton), violin and the clarinet performance.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 /연합뉴스

The Street performance is open for everyone to participate. Anyone who wish to apply, can send the application form at realjihun@seoul.go.kr. Every Wednesday, you can enjoy lunch outside where there are 15 parasol table set.

For the seats are limited, you must reserve the seats in advanced online. The rest will be for those who come on that day.

Every Friday to Sunday, there will be a market place opening for Societal Companies, Compan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wn Companies. Art pieces, design crafts are to be sold at the market place.

All of Deoksugung Street Walking Path events will open from April to November exempting the hot season which is from July to August.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PAGODA

소상공인 대출금리 2.94%로 인하

중기청, 1조원 규모 '희망드림 특례보증' 시행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의 창업·운영 자금으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3.27%에서 2.94%로 인하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1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인하되는 정책자금은 올해 227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소상공인 창업자금과 각각 3500억원이 공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공공 밴(VAN 카드결제 대행업체)사를 설립하고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캐치프레이즈에 크게 공감한다"며 "새누리당이 296만명의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이기자

그리스, 9일까지 채무상환 약속

유럽, 경제위기 한숨 돌려

그리스가 오는 9일(현지시간)까지 IMF측에 채무를 상환하기로 했다. 유럽이 그리스발 경제 위기라는 악재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사진)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총재와의 공식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바루파키스 장관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결과 효율적인 협력이 모두의 이익이 된다는 데에 동의했고, 계속되는 불확실성이 그리스에 이롭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IMF측과 그리스는 관련 절차 이행과 양측 간의 정책 논의를 6일부터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그리스의 성장과 고용 정상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스는 오는 9일까지 IMF에 4억5800만 유로(약 5473억원)를 상환하도록 돼 있었으나 구제 금융 분할금(72억 유로)을 받기 위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상환 가능 여부에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서이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뉴욕 5번가 부활절 퍼레이드 5일(현지시간) 뉴욕 5번가에서 열린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가한 흑인가족이 카메라를 보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국민안전처, 재난협력체계 구축

국방부와 국민안전처가 재난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업무협정을 7일 체결한다.

국방부는 6일 두 기관은 국민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안전·소방·해경을 포함한 업무협정을 체결해 민군자원 지원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다.

재난 발생시 국민안전처는 재난상황 총괄관리와 국방부에 지원요청 역할을 한다. 국방부는 보유자원관련정보 공유와 적극 지원 역할을 맡는다.

국방부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간 협력체계가 분산적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지자체와 군부대 간 자발적 협력체계로 재난수습이 신속히 이루질 것이란 설명이다. /정윤아기자 yoona1@

조용병·김주하가 지방으로 간 까닭은?

은행장들, 현장 중심 경영·임직원 간 스킨십 강화

시중 은행장들이 일제히 자리를 비우고 지방으로 떠났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임직원들 간의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지난 주말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했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영업점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취지다.

조 행장은 200여명의 임직원들과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달리기를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임직원들에게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더욱 가속화해 고객과 사회, 신한의 가치를 함께 높이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행장은 지난 2일 서울·경인지역의 우수고객 400여명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도 가졌다. 세미나는 우수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재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 행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을 훌륭히 이끌고 계신 고객님이 계시기에 한국 경제는 희망 속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신한은행은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실질적인 도움과 고객 특성과 니즈에 맞춘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고객 초청행사는 전국 순회로 진행되며 지방의 경우 공단지역을 찾아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로 현장중심 경영을 내세운 행장도 있다.

김주하 NH농협은행장은 올해 경영목표로 '신뢰와 혁신으로 내실경영 기반 구축'을 내걸고 세밀한 것까지 챙기는 '마이크로(MICRO)' 경영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김 행장은 올해 초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11개 영업본부를 방문, 영업현장을 독려했다. 또 영업점장과 직원들, 거래 기업체를 직접 찾아다니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최근에는 '우수기업 CEO 초청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는 충북소재 중소기업 CEO와 기관장 등 45명이 참석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행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농협은행이 든든한 동반자로 금융지원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성장동력 강화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 기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영업활성화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행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역 주요 기업체 대표들과 오찬을 하며 국내외 경제동향과 지역경제 현황 등에 대한 상호 정보 교환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창원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지엠비코리아와 방산 정밀단조 제조업체인 한일단조공업을 방문해 기업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행장은 "영남지역 기업체에 대한 여신지원과 관련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지원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영남 심사팀'을 운영 중"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종복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장도 취임 100일을 맞아 전국 순회방문에 나선다. 박 행장은 오는 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영업점을 방문, 현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금융당국 "정책성 서민금융 금리인하 추진"

햇살론, 바꿔드림론과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일제히 떨어질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 계층을 위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 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변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또 연 2%대의 고정금리·균등분할상환으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해소를 위해 마련된 만큼 서민층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장기저리 분할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소득이 낮은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라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턱없이 부족한 지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했지만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해 통일된 전환 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디딤돌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 같은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30% 수준의 저축은행·대부업체 상품을 10% 안팎의 금리로 낮춰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이나 바꿔드림론 상품 등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더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상품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은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정책성 서민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처 내 정책 수립과 정책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서민 금융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 '11번가 우대적금' 출시

최대 年11% 이자 우대

신한은행은 6일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손잡고 적금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11번가 우대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11번가에서 신한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5%의 리워드를 제공한다. 고객은 적금 만기일에 연결 계좌로 리워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금 이자와 합산 시 최대 연 11%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품 가입 금액은 월 1000원 이상 3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또 6개월 만기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2.5%(4월 6일 기준)까지 금리가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에스케이플래닛㈜과 '핀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제휴'를 체결한데 이어 11번가와 연계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핀테크형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번가 이용 시 최대 10% 청구할인이 가능한 '11번가 레이디/2030 카드'를 통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저축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저금리 시대, 수익형 오피스텔 '봄바람'

오피스텔 분양가가 상승세다. 기준금리가 1%대까지 내려가면서, 건설사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린 영향이다.

방 구하기 서비스인 방콜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텔 3.3㎡당 분양가는 1343만원으로 지난해(1150만원)보다 193만원 상승했다. 경기도는 817만원에서 53만원 오른 870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 서울 구별 평균 분양가는 대부분 지역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광진구는 3.3㎡당 평균 분양가 1052만원에서 1640만원 ▲마포구는 1285만원에서 1400만원 ▲성동구는 102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광명시가 강세다. ▲수원시는 3.3㎡당 분양가 771만원에서 914만원 ▲광명시는 3.3㎡당 640만원에서 854만원으로 상향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국민銀, 외국인근로자 무료 의료봉사 활동

KB국민은행은 5일 안산 원곡동 송금센터 인근 경로당에서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말 진료에서는 직원 20명, 자원봉사자 15명, 의료진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침시술, 내과, 외과, 치과치료, 채혈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문진을 통해 처방약과 함께 개인위생용품도 제공했다.

국민은행은 오는 2016년 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고객 줄고 금리도 하락하고… 저축銀 '이중고'

기준금리 하락여파… 수익 높은 증권·펀드로 이동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극복한 저축은행업계가 이번에는 기준금리 인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로 고객을 유치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

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지난해 12월 예·적금 금리는 평균 2.67%와 3.35%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5%p, 0.25%p 감소한 수치다. 이 기간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잔액도 29조3441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984억원 줄었다.

저축은행의 금리는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6일 현재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26%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1%대 상품도 나오기 시작했다.

조은저축은행은 지난달 20일 정기예금 금리를 1.9%로 내린 상품을 출시했다. 이어 현대·삼보·한신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1.9%로 내렸고 페퍼저축은행은 금리가 1.8%인 상품을 내놨다.

반면 기준금리가 하락하자 수익율이 높은 증권과 일부 펀드로 갈아타는 고객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객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을 의미하는 고객예탁금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8조3625억원. 한 달 전인 지난 2월말(16조7382억원)보다 1조6243억원(9.7%) 증가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일까지 해외 주식형 펀드에는 8201억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예금 금리를 앞서면서도 안정성을 갖춘 채권형 펀드도 올해 들어 2629억원이 몰렸다.

이에 일부 저축은행들은 고객이탈 방지를 위해 높은 금리상품을 한시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예금이 하루 평균 10억원씩 빠져나가던 친애저축은행은 지난달 12일까지 2.8%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정기예금 한시상품을 출시했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아직 시중은행보다 높은 예·적금 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로 고객이 줄고 있고 대출수요도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4~5년간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이제 적극적인 영업을 해야 하지만 금리 인하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카드 쓰고 렌탈요금 할인받자"

우리카드, '대림케어라서 즐거운 카드' 출시

우리카드는 대림케어서비스와 손잡고 생활가전 대여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림케어라서 즐거운 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생활가전 렌탈 요금을 자동이체할 경우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할인해 준다.

예컨대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임대 요금을 각각 2만원, 1만5000원,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2만5900원의 '비데와 냉온정수기' 결합상품을 월 5900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카드를 월 30만원만 써도 대림 직수형정수기나 비데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모든 영화관 이용 시 30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에서는 20%, 아웃백과 TGIF에서는 10% 할인이 제공된다.

이밖에 주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윤정원기자

"2025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

강복구 알토엔대우 대표

대우가스보일러가 알토엔대우로 새롭게 출범한다.

6일 알토엔대우는 지난 3일 창립 29주년을 맞아 '2015 뉴스타트 알토엔대우 사옥 입주식과 CI 및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1986년 대우전자의 가스보일러사업부로 출범한 알토엔 대우는 에너지 종합기기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하고 동탄 신사옥으로 사옥도 이전했다.

강복구 대표는 "기존의 가스보일러 단일 품목 만을 생산하는데 주력했던 한계를 벗어나 다양하고도 특화된 에너지 종합기기 브랜드로 발전하겠다"며 "더 나아가 에너지 사업분야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그간 광주생산공장과 부평사무실로 회사가 이원화 된 탓에 겪어 온 소통의 애로와 업무 효율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일신하기 위해 공장과 본사 기획, 영업 조직을 한 곳에 모은 원스톱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췄다"며 "특히 동탄신사옥에는 20만대 규모의 최신 생산 설비를 완비해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우의 이름으로 국내보다는 러시아 등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높였던 저력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내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것"이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세계 수준의 가스보일러 품질을 당당히 소개함과 동시에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알토엔대우만의 신제품들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토엔대우는 2025년까지 매출 1조원을 달성해 에너지 기반 공간가치 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중장기 목표도 설정했다.

강 대표는 "2017년까지 매출 500억을 달성하고 5년 뒤인 2019년 매출 1000억 달성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10년 뒤인 2025년 매출 1조원 달성을 통해 공간가치 일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역설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흥국생명·화재 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는 3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과 흥국금융가족의 신나는 만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흥국봉사단과 그룹홈 관계자들이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흥국생명 제공

흥국금융가족, 그룹홈과 '신나는 만남' 봉사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화재·증권·자산운용과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이하 흥국금융가족)은 지난 3일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에서 '아동·청소년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과 흥국금융가족의 신나는 만남'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흥국봉사단과 그룹홈 관계자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흥국금융가족은 올해 16회에 걸쳐 그룹홈에 동작·미술·조형 예술을 통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실시하게 될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진행된 '예술치유 체험'을 통해서는 흥국봉사단이 각각 매칭 된 그룹홈 관계자와 직접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해 봄으로써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교육간 유의점과 교육 방법을 숙지했다.

한편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7인 이하의 소규모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김형석기자

하나카드, '대한민국만세 카드' 이벤트

광복 70주년 기념

하나카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싱크(Sync)카드와 비바 지(VIVA G)카드 플레이트를 태극기 디자인으로 변경한 '대한민국만세 카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광복절(8.15)의 의미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광복 70주년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부터 8월까지 '대한민국만세' 카드를 사용한 회원 815명은 추첨을 통해 8월 한 달간 사용금액의 8.15%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과 할부 금액이 총 100만원 이상인 회원 중 10명에게는 7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광복 70주년 기념 여행패키지 특별할인 이벤트도 마련됐다. 오는 8월까지 백두산과 상해여행 상품을 결제할 경우 여행객 1인당 10만원의 할인혜택이 돌아간다.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동반 1인 포함 총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 상품 행사는 400명 예약 시 마감될 예정이다. /윤정원기자 garden@

4천만원 있으면 무조건 잡아라!

국내 최초! 강원라마다 리조트급 호텔

수익 안심 보장제

객실 등기분양

소중한 재산 실속있는 분양가로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매월 수익은 신탁사에서 직접 드립니다.

분양가	대출	실투자	수익금	대출이자(4%일때)	수익률
9500만원	50%	4750만원	760만원	190만원	연 12%

- 호텔최고운영사 **산하HM 직접운영**
-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4천만원대**
- **확정수익 연 12%** (실투자대비)
- **10년간 4% 이자 지원**
- 수익금 6개월 선지급 **10년간 수익보장**
-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관광인프라 강원랜드, 워터월드, 365 세이프타운 테마파크, 레이싱파크, 하이원 스키장, 오투리조트(스키장, 골프장) 등
교통메리트 영동선, 태백선,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 국도 31, 35, 38호선, 정선·태백 주요 관광지 리무진버스 운행
사계절수요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황지연못(낙동강발원지), 검룡소(한강발원지), 태백산 눈축제 등 365일 다채로운 축제
특급부대시설 국내 최대 야외 글램핑장, 테디베어 갤러리, 야외 레스토랑 , 야외 바비큐장, 야외 수영장, 카바나존

수익안심 보장제도
- 신탁사에서 매월 수익금 지급 관리
- 5년 후 원분양가 + α 로 환매 조건
- 10년간 연 12% 임대수익 + 4% 이자지원

임대차 계약서 발행

청약방법

청약금 : 100만원 [외환은행 630-009601-061]
예금주 : (주) 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분양문의

02)756-2000

| 운영사 (주)산하HM
| 자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SAENGBO REAL ESTATE TRUST CO., LTD.
※상기 예상수익은 생보부동산신탁과 무관합니다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K+ (주)케이램 아키텍 www.klambarchi.com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상기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천상품 가입하면 사은품

한국투자證 '유유자적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이 추천상품 가입고객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유유자적(悠悠自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한국투자증권이 추천하는 금융상품에 3000만원 이상 가입하면 그 즉시 3만원 상당의 여행용 화장품 세트를 제공한다. 이벤트 종료 후에는 가입 금액에 따라 1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30만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도 추가 증정한다.

이벤트 대상 추천상품은 한국셀렉트중국본토ETF(주식-재)를 포함한 중국주식 펀드 4종과 슈로더유로증권(주식)·프랭클린재팬(주식) 등 유럽·일본 해외펀드 4종, 중국투자 후강퉁랩 4종 등 총 12개이다. 이벤트 대상 금융상품은 추천상품 라인업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박원옥 WM전략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부터 시장 분석과 전망을 통해 매월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있는데, 투자에 대한 고민은 저희에게 맡기고 여유로운 봄날을 즐기시라는 의미로 준비한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규 가입고객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6일부터 10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하여 개봉 예정작 영화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김민지기자

부활하는 증권사…1분기 실적↑

일 평균 거래 대금 7조6600억… 2009년 이후 최대

증권업계가 올해 1분기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에 힘입어 화려하게 부활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대금 증가로 수수료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며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 2009년 이래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대우·NH투자·미래에셋·키움·메리츠종금·한국금융지주 등 7개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한 3722억원 수준이다. 특히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은 1분기 순이익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103%,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증권도 대우·한국·현대·미래에셋·키움 등에 대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109.5% 증가해 컨센서스(시장 평균 추정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 실적 개선의 이유로 ▲거래대금 증가 ▲상품이익 회복 ▲파생결합증권 발행 시장 호황 ▲판매관리비 절감 등을 꼽았다.

실제로 올 1분기 거래대금은 하루 평균 7조66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9% 증가했다. 지난해 증권사 구조조정에 힘입어 퇴직금 적립 부담이 줄어든 것도 실적 개선에 한몫했다. 또 양호한 주가 상승세로 주가연계증권(ELS)의 조기상환이 증가하고,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분기부터는 상하한가 폭 확대와 인터넷은행 규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대한 정책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중소형주 거래 증가와 신규상장 주식의 진입 효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며 "브로커리지(위탁매매) 부문의 수익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증권업종에 상·하한가 폭 확대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에 대한 증권사의 주도권 여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탁금의 자본시장 유입 정도가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는 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증권주 동향의 핵심은 변동성 관리"라며 "증권사 수익성은 바닥을 지났지만, 큰 폭의 부침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해서는 '매수' 투자의견을,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에 대해선 '중립'을 각각 유지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시니어 고객 잡아라" 한화투자증권은 '시니어 고객 패널' 제도를 도입, 노년층 고객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이달부터 도입되는 고객 패널 제도는 노년층 투자자의 니즈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 수렴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한화투자증권 제공

서민 주택 대출 금리 27일부터 인하

국토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0.2~0.5%↓

서민층 주거비 완화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층 대상 국민주택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득과 보증금 범위에 따라 현재 1.7~3.3% 수준인 대출금리는 1.5~3.1%로 낮아진다.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구간별로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각각 적용한다.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층 단독가구주는 현행 만 30세부터 지원하던 것을 만 2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춘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이 상품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 준다. 720만원 대출시 2년 이후부터 이자부담액이 연 14만4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약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월 단위로 대출금을 지급하던 것을 임대인 통장에 직접 연 단위로 한번 지급이 허용된다. 취업준비생의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졸업 후 3년 이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의 부모소득 기준을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3%포인트 내려 현재 2.6~3.4% 수준에서 2.3~3.1% 수준으로 떨어진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또한 25% 정도 내린다. /김학철기자 kimc0604@

"금값, 올해도 박스권 이어질 듯"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올해 금 가격이 박스권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금 가격은 2013년 초 급락 이후 온스당 1150~1200달러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디플레이션 우려'와 '제한적 달러화 약세'에 따라 올해도 박스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은 안정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실물자산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던 2007~2008년 당시 금 가격이 크게 오른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여건이 인플레이션 헤지용 금 투자 수요 유입을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금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금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 연구원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강달러 압력이 다소 누그러졌으나,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 2·4분기 중 강달러 압력이 커져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도 "9월 금리인상 이후에는 달러화 약세와 함께 상승 반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달러화가 기조적 약세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 만큼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중국 수요 역시 가격 하단을 지지해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3년 금 가격 급락 당시 중국의 금 소비량은 전년대비 41% 급증하며 최대 금 소비국으로 부상했다.

선 연구원은 "지난해 시진핑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에 따른 사치품 소비 감소 영향 속에 줄었던 금 소비가 올해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이 소비재 성격을 띠는 점을 고려하면 5% 내외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 가격이 박스권 내에 갇히면서 선물 간 가격 차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 연구원은 "4월과 12월 선물 간 가격차가 0.5%에 불과한 만큼 금 시장은 과거와 같은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인 투자자들은 ETF(지수연동형펀드)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해외 ETF 중에서는 SPDR Gold Shares(GLD)와 iShares Gold Trust(IAU)를, 국내에서는 KODEX 골드 선물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김보배기자 bobae@

영업익 뚝 떨어지고 직원도 내보냈는데…

송치호 LG상사 부사장 연봉만 '쑥'

지난해 이희범 전 부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송치호(사진) 단독 대표이사(부사장)가 이끄는 LG상사의 영업이익이 '반토막'나고 직원도 감원됐지만 오히려 작년 연봉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 대표가 지난해 10%이상 인력 감축 등 직원들에게 고통을 감내시키면서 살아남은 직원들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상사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8106만8000원이다. 이는 2013년 연봉 7456만9000원보다 8.7% 오른 것이다.

그러나 작년 연봉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13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2012년) 대비 뒷걸음질 쳤다.

우선 201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2.2% 감소한 982억8519만원이다. 매출액도 전년에 비해 7211억여원(5.6%) 줄어든 12조726억8579만원에 그쳤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의 경우, 440억89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851억8182만원이나 줄었다. 무려 80.8% 마이너스 성장을 한 셈이다.

이런 실적부진은 직원 감축으로도 이어졌다. LG상사의 직원수는 2013년 정규직 645명, 비정규직 19명 등 총 664명이었지만 작년에는 정규직 563명, 비정규직 12명 등 총 575명으로 13.4%나 줄었다.

물론 연봉은 임금단체협상 등을 통해 인상될 수 있지만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감원되지 않은 직원들만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10% 넘는 감원이 이뤄졌는데 연봉은 상대적으로 8%이상 올라가는 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G상사 관계자는 "직원 현황의 변동은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연적 퇴사나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1인당 직원 급여는 해당연도의 성과급 지급 규모나 임단협을 통한 인상률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jh@metroseoul.co.kr

삼성전자 모델이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초대형(88형) SUHD TV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 'SUHD TV' 프리미엄 시장서 돌풍

매주 30%이상 판매 신장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출시한 SUHD TV의 시장 초기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삼성전자는 SUHD TV가 국내 출시 이후 매주 평균 30% 이상 판매 신장을 나타내고 있을 정도로 성장 추이가 뚜렷하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누적 판매 역시 지난해 출시된 커브드 UHD TV 판매량과 비교해 보면 30% 이상 많다.

본격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한 3월 한 달간 SUHD TV 판매량이 1200대에 달할 정도로 프리미엄 TV 판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출시된 SUHD TV는 뛰어난 화질을 무기로 한다. 삼성전자는 10년연속 세계 TV 판매 1위 달성을 위한 핵심 제품으로 손꼽고 있다.

SUHD TV 강점은 진일보한 디자인과 화질이다. 삼성전자 영상 기술력을 집대성해 출시한 SUHD TV는 독자 기술인 '나노 크리스털'로 탁월한 화질 성능을 갖췄다. 커브드 스크린과 함께 모델에 따라 고급스러운 그랜드 챔퍼, 셰링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디자인도 강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SUPER TV 진가를 알아본 고객이 많아지고 입소문을 타면서 SUHD TV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LG, 편의성 높인 'LG UX 4.0' 공개

LG전자는 이달 말 공개하는 전략 스마트폰 G4에 전보다 쉽고 간편해진 'LG UX(사용자 경험) 4.0'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LG UX 4.0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 설정으로 전문기기처럼 수준 높은 기능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UX 4.0에 새롭게 적용된 '퀵 샷'은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후면 하단 볼륨 버튼을 두 번 누르면 원하는 장면을 순간 포착할 수 있다.

카메라는 전문가, 일반, 심플 등 3가지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전문가 모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설정을 통해 전문가용 카메라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스마트 게시판'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에 흩어진 정보를 위젯 형태로 모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캘린더'는 여러 곳의 일정을 모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LG전자는 2012년 'Q메모'와 'Q슬라이드'를 시작으로 주요 전략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더욱 진화한 UX를 선보였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 스마트카메라 NX500 체험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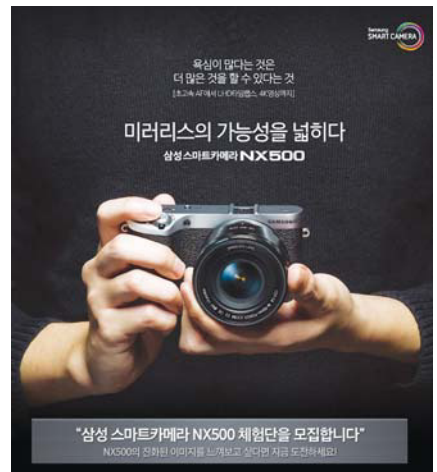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카메라 NX500의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NX500 체험단 모집은 온라인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거쳐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총 20명에게 NX500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스마트카메라 NX500

1차 체험단 모집은 12일까지 커뮤니티 'SLR클럽'과 'DOF'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차 체험단 모집은 15일부터 26일까지 '선사모'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체험단은 신청 각오와 함께 NX500으로 담고 싶은 촬영 계획을 각 커뮤니티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작성하면 된다. 당첨자 발표는 15일 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선발된 이들은 NX500 체험단으로 약 한 달 동안 다양한 미션을 수행한다. 체험단을 대상으로 4K 영상 기능 활용 강좌를 실시하며체험기간종료 후에는직접 사용했던NX500을 무상으로 증정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NX500은초고속 오토 포커스(AF)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더욱 정확히 포착할 뿐만 아니라 UHD타임랩스 등 다양한 영상 기능과 더불어 4K 영상 촬영까지 가능해 동급 최상의 성능을 자랑한다"며 "직접 체험을 통해 NX500의 향상된 기능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LG이노텍, 무선충전부품 시장 공략

무선충전 수신모듈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지켜온 LG이노텍이 송신모듈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지난 2월 말부터 북미 스마트폰 주변기기 업체에 스마트폰 무선충전패드에 장착되는 송신모듈을 공급하고 있다고 6일 발표했다. 수신모듈을 주로 만들던 회사가 본격적으로 송신모듈 양산에 들어간 것이다.

이 회사 주력상품은 무선통신 수신모듈이다. 수신모듈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장치로써 송신모듈과 반응해 유도전류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조사업체 TSR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세계 무선충전 수신모듈 시장 점유율 42%를 기록해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이노텍이 송신모듈을 양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마트폰 무선충전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송신모듈이 들어가는 충전패드나 거치대 수요가 올해부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TSR은 전세계 무선충전시장 규모가 2015년 약 5억5300만 달러에서 2019년 약 20억1700만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양산하는 무선충전패드는 충전효율을 기존의 65% 내외에서 70%까지 향상시켰다. 11.4㎜ 두께의 슬림 디자인을 채택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무선충전규격인 세계무선전력협회(WPC)의 '치(Qi)' 규격을 획득해 같은 모듈을 장착한 스마트폰이면 어떤 제품이든 충전 가능하다. /양성운기자

한진重, 2만600TEU급 컨테이너선 3척 수주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6일 프랑스 해운사 CMA CGM으로부터 2만600TEU(1TEU는 약 6미터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 운반선 3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m, 폭 59m, 깊이 33m 규모다.

배 한 척에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만600개를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이다.

갑판 면적은 축구장 4개 넓이다.

적재된 컨테이너 박스를 일렬로 놓으면 서울에서 강원도 횡성까지(126km) 이을 수 있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의 경우 길이 550m, 폭 135m에 이르는 세계최대 크기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다.

2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빅조선소 전경 /한진중공업 제공

한진중공업은 선주의 요구에 부응해 2만600TEU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기 위해 피로설계 수명을 늘리는 등 선체구조를 강화했다.

최신의 고효율 엔진 장착과 추진기 설계, 에너지 저감 장치 개발 등 친환경 성능에 공을 들였다.

사측은 해당 선박을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201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계획이다. /이정필기자

GM, 車구입시 최대 200만원 지원

'새봄맞이 페스티벌'

한국지엠주식회사가 4월 한달간 '새봄맞이 페스티벌'을 열고 할부프로그램과 현금할인 등 역대 최대의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달에 시행했던 모델 사양 업그레이드 혹은 패키지와 편의사양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빅 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4월에 확대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말리부 142만원, 크루즈 12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혜택이 제공된다. 캡티바, 올란도 등 쉐보레 RV 차종에는 할인 혜택을 더욱 강화, 이 모델의 스페셜 에디션 모델 구입시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상용차인 다마스와 라보를 현금으로 사면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면 첫 1년간 월 1만원의 원금만 상환하고 2년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최대 36개월간 나눠 낼 수 있다.

한국GM은 '자신만萬 할부 프로그램'으로 소정의 계약금만 내면 첫 1년간 12만원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가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9% 저리 할부 프로그램으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 입사, 퇴사, 입학, 졸업, 출산, 결혼, 신규 면허자 등 새 출발을 하는 고객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며 한국GM의 차량 구매 횟수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마스와 라보를 현금으로 사면 20만원의 기본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새출발 캠페인과 재구매 혜택 등을 활용하면 최대 70만원까지 할인된다. /김종훈기자

쌍용차, 코란도 투리스모 익스트림 출시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6일 전국 영업소에서 코란도 투리스모 익스트림 판매를 시작했다.

사측에 따르면 코란도 투리스모 익스트림은 엔트리 트림인 LT에 다양한 소비자 선호 사양을 추가하고 전용 엠블럼을 사용했다.

RT 모델에만 적용됐던 HID 헤드램프를 비롯해 ▲스마트키 시스템 ▲전자동 에어컨 ▲패션 루프랙 ▲17인치 스퍼터링 휠 & 풀 사이즈 스페어 타이어(4WD) 등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코란도 투리스모 익스트림의 판매가격은 2818만~3063만원이다.

기존 모델 가격은 트림별로 ▲LT 2576만~2973만원 ▲GT 3072만~3341만원 ▲RT 3464만~3657만원이다. /이정필기자

두산그룹 커넥션 핵심 박범훈 사외이사 둔 두산엔진 영업실적은

작년 영업손실 396억 적자전환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중앙대학교 이사진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중앙대 이사 8명 가운데 5명은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두산일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전 수석이 사외이사로 있는 두산엔진의 영업실적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중앙대 이사진을 줄소환할 예정이다.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측에 특혜를 주고 딸의 중앙대 채용이나 부인의 두산타워 상가 임대분양 등의 반대 급부를 챙긴 것 또한 수사중이라 그가 사외이사로 있는 두산엔진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지난해 3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지난해 두산엔진은 매출액 8888억원, 영업손실 396억원, 당기순손실 422억원의 영업실적을 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7439억원에서 19.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7억원에서 403억원 줄며 적자 전환한 수치다.

당기순손실은 52억원에서 370억원이 더 빠져 706.5% 악화됐다.

2013년 매출 7439억원, 영업이익 7억원, 당기순손실 52억원의 영업실적 역시 전년 대비 크게 떨어진 규모다.

두산엔진은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46.0%(6349억원), 영업이익이 99%(690억원) 감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오른쪽), 홍승용 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출처=뉴시스(청와대 제공사진)

당기순이익은 1903억원에서 1956억원 줄며 적자 전환했다.

지속되는 적자에 대해 사측은 저가수주 물량의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두산엔진의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노재웅 한국신용평가 연구위원은 "조선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엔진 판매가격이 하락하고 발주물량이 축소되면서 지난해 영업적자가 396억원 발생하는 등 부진한 영업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선시장 및 조선산업의 업황을 고려할 때 수익성 회복 가능성은 당분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엔진가격 회복 지연 및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적자로 인해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창출능력이 저하됐다"며 "그 결과 지난해말 연결 총차입금 규모가 305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영업 대비 재무부담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하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수석은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 출석률·안건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받고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가 없는지를 감시하는 두산엔진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직도 수행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기아차, 中누적판매 천만대 돌파

'현대속도' 신조어 탄생

현대·기아차가 중국시장에서 누적판매 1000만대를 돌파했다. 현대·기아차는 이달 3일 기준 중국에서 1000만776대를 판매해 작년 9월 900만대 돌파 이후 7개월 만에 1000만대 판매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현대·기아차가 중국에 진출한 지 13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중국 시장 내 1, 2위 업체인 폴크스바겐과 GM이 각각 25년과 17년 만에 세운 기록을 뛰어넘었다.

업체별로는 베이징현대가 654만7297대, 둥펑위에다기아가 345만3479대를 각각 판매했다.

현대·기아차가 누적판매 1000만대를 달성한 지역은 한국(1996년)과 미국(2011년)에 이어 중국이 3번째이다.

현대차는 2002년 중국 국영기업 베이징기차와 함께 현지 합자회사 베이징현대를 설립하고 그해 12월부터 EF쏘나타(현지명 밍위)와 아반떼XD(현지명 엘란트라)를 출시했다. 이후 중국 시장 진출 2년 만인 2004년에 판매순위 5위에 올랐고 이듬해 4위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중국 산업계에서는 '현대 속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최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에서 열린 제4공장 착공식에서 "그동안 중국 파트너들과 이루어 왔던 '현대 속도'와 '현대 기적'을 다시 쓰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기아차는 둥펑기차, 위에다기차와 함께 3자 합자로 '둥펑위에다기아'를 설립한 이후 2002년 천리마 출시를 시작으로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중국시장 8위의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현대·기아차를 합치면 2009년부터 6년째 판매 순위 3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지전략차종 투입, 최대차급 시장 적극 공략, 적기 생산능력 확대 등 3가지가 꼽힌다.

현대차의 첫 중국 전략차인 위에둥(중국형 HD아반떼)은 2008년 첫해 8만5957대를 판매한 이래 2013년 누적판매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베스트셀링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빠르게 성장하는 준중형 시장을 겨냥해 지난해 현대차 5개, 기아차 8개 등 총 18개의 차종을 투입, 총 108만대를 판매해 이 차급에서 시장점유율 13.4%를 기록했다. /김종훈기자 fun@

이통사 연봉은 LG유플러스가 '1위'

이상철 부회장 보수 21억7800만원 '연봉킹' 역전
'급여 반납' 황창규 KT회장 5억700만원 '꼴찌로'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순위가 1년새 역전됐다. 2013년 연봉 꼴찌를 기록한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 21억원의 연봉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하성민 SK텔레콤 전 사장은 14억원으로 이동통신사 1위의 체면을 구겼다.

반면 2013년 '연봉킹' 자리에 올랐던 이석채 KT 전 회장의 뒤를 이어 KT를 이끌고 있는 황창규 회장의 보수는 5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경쟁사 CEO들의 3분의 1 금액인데다 전임 회장 보수의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년만에 뒤바뀐 이통3사 CEO의 연봉서열은 현재 각사가 처한 경영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실적 성장세에 탄력이 붙은 LG유플러스, 영업정지·점유율 50% 붕괴 등 각종 악재로 주춤하는 SK텔레콤, 대규모 적자에 창사 첫 무배당을 결정한 KT의 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해 급여 12억2700만원, 상여금 9억5100만원을 더해 총 21억7800만원을 수령했다. 이는 2013년에 수령한 보수 16억7400만원보다 5억400만원(30%) 많은 금액이다.

LG유플러스는 상여금과 관련해 "2013년 영업수익 7조8000억원, 영업이익 5426억원을 기록하는 등 계량지표 면에서 높은 성과를 낸 데다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업구조 변화를 이끌어낸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전 사장, 황창규 KT 회장.

지난해 말 퇴임한 하성민 SK텔레콤 전 사장은 급여 7억5000만원, 성과급 7억800만원 등 총 14억58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전년보다 1억9200만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하 전 사장 이후 바통을 넘겨받은 장동현 사장은 지난달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정식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조직 재정비와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의 보수는 총 5억7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초 KT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원결의에 따라 기준급의 30%를 반납한 영향 때문이다. 2013년 기준 퇴직금을 제외하고 총 18억2600만원을 받아간 이석채 전 회장과 비교하면 4배 가량 줄어들었다.

이통3사 CEO 연봉순위에서 1년만에 꼴찌로 추락한 KT는 지난해 대대적 인력감축에 따른 거액의 명예퇴직금 등으로 291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당기순손실은 9655억원을 기록, 전년에 비해 적자폭이 9000억원 넘게 확대됐다.

다만 KT는 올해부터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 개선 효과와 비용구조 혁신 노력 등이 가시화될 수 있는 만큼 실적이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올해 무선 통신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유선부문에서는 지난해 10월 상용화한 기가인터넷과 기가 UHDTV 사업을 확대해 가입자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5대 미래융합 서비스에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수익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하기자 happyyjh@metroseoul.co.kr

LGU+, 용산 신사옥 시대 개막 "제2 도약"

LG유플러스가 남산시대를 연지 5년만에 첨단IT 메카인 용산에서 제2 도약의 힘찬 첫발을 내디딘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6일 오전 8시 주요 경영진과 함께 용산 신사옥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입구에서 환영하는 등 새로운 용산 시대 개막을 직원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 부회장은 "남산시대는 'LTE는 LG유플러스'라는 평가를 고객에게 받는 등 혁신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며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갔다"며 "용산시대를 맞아 '뉴 라이프 크리에이터(New life Creator)'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과 직원들이 용산 신사옥 1층에서 힘찬 파이팅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 신사옥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2부지에 연면적 5만5000여㎡, 지하7층, 지상21층 규모다. 지상4층 이상은 업무시설로, 지상3층 이하는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지원시설로 꾸며졌다.

용산은 LG데이콤이 지난 1983년 한국 최초로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이메일 서비스 제공, PC통신 천리안 서비스 개시 등 인터넷 시대의 포문을 열었던 곳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보통신의 중심지이며 도시 교통과 물류의 중심인 용산에서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어 5G시대 기술을 선도하는 차세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하기자

KT, 4월 '다운·업·프리 앵콜 이벤트'

KT는 3월 한달간 실시했던 '다운·업·프리 이벤트'를 4월에는 고객의 참여와 호응이 좋았던 제휴 혜택 중심으로 한 '다운·업·프리 앵콜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할인혜택으로 4월 10일 빕스(VIPS) 50%할인, 문화혜택으로 연극 '옥탑방 고양이'를 2만원 할인했다.

무료혜택으로는 해외 관광명소 7곳의 입장권(파리 루브르 박물관, 파리 오르세 미술관, 뉴욕 자유의 여신상 크루즈, 홍콩 피크트램 왕복권 등)을 포인트 미차감으로 무료 제공하는 '글로벌 프리'와 매월 트렌디한 아이템을 추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득템프리'가 진행된다.

KT 로밍&제휴사업담당 이병무 상무는 "3월 '다운·업·프리 이벤트'를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성원에 보답하고자 4월 앵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최강 혜택을 지속 제공해 올레멤버십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하기자

SK플래닛, 웹 기반 간편결제 '시럽페이' 출시

SK플래닛은 사용자가 PC와 스마트폰 어디서든 자신이 설정한 결제비밀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시럽 페이'를 출시하고 11번가의 모든 쇼핑채널에 적용했다고 6일 밝혔다.

시럽 페이는 웹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나 액티브 엑스, 보안프로그램 등 아무런 추가 설치과정 없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이용자가 PC와 스마트폰 어디서 쇼핑을 하던 PC나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1 단계로 결제가 완료된다.

시럽 페이는 현재 삼성카드, 신한카드, 씨티카드, 하나카드(구 하나SK카드, 외환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와 4월 내 제휴를 완료하고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지하기자

아동 편의·안전기능 강화 SKT 'T키즈폰 준2' 출시

SK텔레콤은 편의·안전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키즈(Kids)용 웨어러블 기기 'T키즈폰 준(JooN) 2'를 7일 단독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T키즈폰 준 2'는 SK텔레콤이 중소기업 '인포마크'와 함께 개발한 손목시계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다. 음성통화, 전용 메신저 준 톡(JooN Talk), 자녀 위치 실시간 확인, 위급 알람, 캐릭터 키우기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부모에게는 자녀의 안전 관리 서비스를, 자녀에게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 목소리를 반영해 편의성을 높였다. 터치스크린 적용, 배터리 용량 증대, 디자인 향상 등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뿐 아니라 준 톡, 캐릭터 키우기 등 다양한 기능도 추가했다. 배터리 용량 증대와 스피커 업그레이드로 음성통화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더불어 자녀의 흥미 유발을 위해 캐릭터 키우기, 퀴즈 풀기, 배지 모으기 등 재미요소도 강화됐다. 특히 아이들이 선호하는 또봇, 쥬쥬 등의 캐릭터를 도입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췄다.

'T키즈폰 준2'는 표준요금제보다 저렴한 월 8000원의 'T키즈 전용요금제'로 이용 가능하다. 음성통화 30분, 망내 지정 1회선 음성무제한, 데이터 100MB가 제공된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수시로 자녀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부모의 니즈와 부모와 쉽게 통화하려는 자녀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T키즈폰 준2'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니즈를 분석해 세분화된 고객군에 맞는 혜택 체감형 단말 및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하기자

완벽한 만남.
강력한 파워.
함께 하면 달라집니다.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출시

한국야쿠르트, 인체적용시험 결과 17% 추가 성장

한국야쿠르트(대표 고정완)가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 '키성장솔루션 업'(사진)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천연 한방소재인 '황기추출물등복합물(이하 'HT042')을 주 원료로 만들었다.

12주간 신장 하위 25% 미만인 10~15세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한 결과, '키성장솔루션 업'의 주 원료인 'HT042'를 매일 섭취한 아이들은 비섭취군의 아이들에 비해 17%(3.3㎜) 더 성장했다고 한국야쿠르트 측은 설명했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HT042'는 국내 최초 식약처로부터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았다.

채승범 한국야쿠르트 마케팅 이사는 "'키성장솔루션 업'은 식약처로부터 키성장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며 "꾸준하게 3개월 이상 마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오는 7일 오전 9시 20분에 GS홈쇼핑을 통해 '키성장솔루션 업'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또한 온라인 브이푸드몰(www.vfoodmall.com)과 롯데백화점을 통해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20일부터는 야쿠르트아줌마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키성장솔루션 업' 가격은 4주 분에 15만4000원이며 용량은 1병 80ml이다. 보다 자세한 제품 설명은 '키성장솔루션 업' 홈페이지(www.keysolup.c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577-3651

"2020년까지 매출 1조 3천억 달성"

네파, 2900억 전방위 투자 해외 매장 500개 오픈

/네파 제공

네파(대표 박창근)가 2020년까지 1조30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잡고 이를 위해 총 2900억원을 전방위적으로 투자한다.

네파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도약의 비전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내에서 네파로 8000억원, 글로벌 시장에서 2000억원, 이젠벅과 네파키즈 등 신규 사업에서 3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네파의 지난해 매출은 5070억원, 올해 매출 목표는 5620억원이다.

이날 박창근(59·사진) 대표는 "아웃도어에 대해 '어렵다' '거품이 꺼지고 있다' 등 우려가 많고 이는 사실이다"며 "천편일률적인 디자인·구성 등으로 살아남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만이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파는 2020년까지 유럽 주요 거점 도시 및 중국 등에 진출해 총 500개 매장을 확보,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프랑스 샤모니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이 7월로 확정됐으며 이를 유럽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내년에는 북경·상해 등 중국에도 매장을 연다. 이를 위해 파트너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파트너사와 협업 제품 개발은 물론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 중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기능성 강화와 고유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 런던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프랑스 샤모니 디자인 스튜디오를 추가 설립한다.

또 '아르마니 익스체인지' 총괄 수석디자이너로 활약했던 이은정씨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발탁했다. '갭' '제이크루' 출신의 세이지 킴을 영입하는 등 유명 디자이너를 통한 디자인 역량도 강화한다. 이 외에 기능성 강화를 위한 신소재·신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브랜딩 캠페인 등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브랜드 자산 강화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마케팅 활동 예산으로 1800억원을 편성했다.

매장 리뉴얼에도 700억원을 쏟는다. 매장 자체를 하나의 홍보 채널로 삼고 대형 매장 오픈·매장 고급화에 주력한다.

네파는 지난해부터 '네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40개 매장을 대상으로 리뉴얼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42% 매출이 성장하는 등 성과를 보여 리뉴얼 프로젝트에 매장 리뉴얼 투자금 모두를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포화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책으로 키즈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세컨 브랜드 '이젠벅'도 매장 확대를 본격화한다. 이젠벅은 올해 90개 매장 오픈, 매출 400억원이 목표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국순당 막걸리 동남아서 통했다

한류영향… 지난해 보다 수출액 52.59%

일본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막걸리 선호가 줄어드는 가운데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은 동남아 지역 막걸리 수출액이 지난해 71만1000 달러로 전년(46만6000 달러)보다 52.5% 늘어났다고 6일 밝혔다.

2010년(14만7000 달러)과 비교하면 381.6% 증가했다.

이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집계한 막걸리 수출이 2011년 5273만5000 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 지난해 1535만2000 달러로 급감한 것과는 대조되는 양상이다. 특히 최대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914만8000 달러로 전년보다 33% 줄었다.

국순당(대표 배중호)은 지난해 하반기 태국에 생막걸리인 '국생막' 수출을 시작, 100여 개 매장에서 국순당 막걸리를 판매하고 있다. 국순당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현지 판매망을 확보해 막걸리 소비를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국순당은 동남아 지역이 쌀 문화권으로 막걸리 거부감이 없는데다 한류 영향으로 한국제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막걸리가 백화점과 호텔 편의점 등에서 고급 주류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급호텔 유커 "환잉광린"

中 노동절 대비 유치 총력

특급호텔들이 중국 노동절(5월1~3일) 연휴를 대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업그레이드는 물론 자주 찾는 관광지의 셔틀 버스 노선을 신설·강화하고 있다.

그랜드 힐튼 서울은 이달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은 홍대입구 역과 호텔을 왕복하는 셔틀 버스(사진)를 신설했다.

중국어로 '환영한다'는 뜻의 '환잉' 프로그램도 지난달 업그레이드했다. 중국어로 적힌 웰컴 레터를 중국인 고객이 체크인 전에 객실에 준비해두고 중국인 관광객이 투숙하는 객실에는 자스민 티와 중국어 TV채널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식 뷔페에는 중국인의 대표적인 아침 식사 메뉴인 콘지·요우티아오·또우지앙·딤섬·자스민 티 등을 준비했다.

리츠칼튼서울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강남·이태원·명동 등 서울 곳곳의 명소를 담은 중국어판 지도를 제작해 벨데스크에서 무료로 증정한다.

서울시내 면세점 무료 이용권과 할인권 등도 함께 준비했다.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항상 상주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A2층에선 메이클리닉과 페보니아 스파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롯데호텔은 지난달 23일부터 셔틀버스 노선을 확대했다. 롯데호텔서울과 월드를 오가는 노선에 코엑스·청담동·가로수길을 추가했다. 롯데시티호텔마포와 인사동 간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이화여자대학교·홍익대학교·명동·남대문·경복궁을 거치며 63빌딩 사이에 운영하는 노선은 LG 트윈타워와 IFC몰·여의도를 경유한다.

켄싱턴 제주 호텔은 중국인 고객이 호텔에서 편안한 휴식과 함께 호텔 시설과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7개의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중국어 메뉴판이 제공되며 아이패드 메뉴에는 메뉴 사진과 함께 중국어로 설명됐다.

제주 관광 지도를 중국어 버전으로 제작하고 중국어 가능 직원을 상시 배치할 방침이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서울우유 '허니초콜릿우유'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100% 국내산 저지방 우유에 국내산 아카시아 꿀을 더한 프리미엄초콜릿우유 '허니초콜릿우유'를 출시했다.

서울우유 허니초콜릿우유는 프리미엄 코코아에 천연 아카시아 꿀로 맛을 내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맛을 내기 위해 쓰이는 설탕이나 시럽이 아닌 천연 감미료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 꿀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칼로리도 낮다. 200ml 기준 130kcal이다.

NECA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아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전문가 초청 원탁토론 "유해성분·발암물질 검출"

전자담배의 안정성과 금연 효과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지난 2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인 'NECA 공명'을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한 '합의문'을 6일 발표했다.

NECA 공명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에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공론의 장이다.

이번 NECA 공명에는 좌장으로 나선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성규 NECA 부연구위원, 김주연 NECA 부연구위원, 신호상 공주대(환경교육학과) 교수, 정유석 단국대(의대) 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장, 이철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원석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사무총장, 김유미 보건복지부 사무관, 최현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등 11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궐련(연초담배)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궐련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니코틴 양을 전자담배 사용자가 조절하는 경우 인체 유입량 예측이 어려워 직간접적 니코틴 노출에 의한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향후 규제 방안으로는 "전자담배가 궐련과 같이 규제되고 있으나 전자담배 기기 자체의 안전성과 니코틴 용액 농도 수준, 첨가물의 안전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근거에 기반을 둔 전문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전문가(대한가정의학회 소속 회원) 33명과 일반인 1000명(흡연자·비흡연자 절반 씩)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진행한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전문가 97.0%는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했으며 87.9%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57.6%는 '금연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전자담배의 판매와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7.6%였다.

일반인 중 '전자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71.6%였으며 '금연보조제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30.3%였다.

/이예진기자 green@metroseoul.co.kr

담배 피는 女, 일반인보다 당뇨 위험 1.9배

질병관리본부, 7000명 조사 하루 한 갑 흡연 男 1.45배

흡연 여성의 당뇨병 발생위험이 비흡연 여성의 1.8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1.54배 높았다.

6일 질병관리본부의 '한국 성인의 10년간 당뇨병 발생과 위험요인' 보고서를 보면 운동 여부, 체질량지수(BMI), 음주 여부, 당뇨병 가족력을 고려해 흡연과 당뇨병 사이의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흡연군에 비해 하루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흡연군에서 당뇨병 위험이 1.54배 높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지역사회기반코호트 작업의 하나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2001년부터 2014년 말까지 서울 주변 중소도시인 경기도 안산과 농촌 지역인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성인 7855명을 대상으로 했다. 2년 주기로 총 6차례에 걸쳐 당뇨병 진단 여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신체활동 정도를 반복 조사했다.

그 결과 과거에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과거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1.31배 높았고 현재 흡연군 중 하루 20개비 미만 흡연자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1.21배 당뇨병 위험이 컸다.

당뇨병 발생 위험에 끼치는 흡연의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뚜렷했다. 여성은 하루에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례자가 많지 않아 흡연군과 비흡연군을 단순 비교한 결과 흡연군의 당뇨병 발생위험이 비흡연군의 1.86배에 달했다. 하루 2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남자 흡연군에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은 비흡연군에 비해 1.45배 높았다.

음주 경험과 당뇨병 발생 위험은 과거 음주군과 현재 음주군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음주군보다 중등도 음주군(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남성 5~30g, 여성 5~15g), 과음주군(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남성 30g 이상, 여성 15g 이상)의 당뇨병 발생 위험이 각각 1.21배, 1.44배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흡연자는 당뇨병의 간접적 고위험군'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당뇨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영수 WPRO 사무처장 무궁화장 수상

'보건의 날' 기념 포상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197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창립일인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올바른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식사는 천천히, 발걸음은 빠르게'란 슬로건 아래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보건의료인과 공무원 등 229명과 단체 3곳에 대한 포상도 수여된다.

신영수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WPRO) 사무처장(72·사진)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원희목 대한약사회 자문위원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한국간호교육의 선구자인 마거릿 제인 에드먼즈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받는다.

성명훈 서울대 교수는 녹조근정훈장을, 서홍관 한국금연협의회장·이수백 열린치과봉사회 고문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이강현 연세대 교수는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한화이글스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열리는 대전 한밭종합경기장 야구장에 건강부스를 운영해 경기장을 찾은 야구팬들에게 혈압과 혈당 체크와 금연상담을 해준다.

"나들이도 식후경… 건강도시락 챙기세요"

강강술래, 봄나들이·보양식 삼둥이세트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전국 곳곳에 열리는 봄꽃 축제를 구경하기 위한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봄맞이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강강술래는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한우불고기(500g)와 한돈양념(500g), 돼지양념(750g)으로 구성된 봄나들이세트를 33%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한우사골곰탕(500㎖/3팩/6인분)과 육개장(500㎖/3팩/6인분), 갈비탕(500㎖/3팩/6인분)으로 구성된 '보양식 삼둥이세트'도 50% 할인된 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 또는 술래양념 1팩(520g)을 각각 4만3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불고기(500g)를 덤으로 증정한다.

더불어 이달 말까지 강강술래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길벗의 '하루에 한 동작 뱃살'과 '마케팅 성공사례 상식사전'을 준다.

"2020년 매출 1조원 도약"

CJ헬스케어 창립 1주년

CJ그룹의 제약 전문 계열사 CJ헬스케어(대표 곽달원·사진)가 2020년 매출 1조원대의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한다.

CJ헬스케어는 지난 3일 충북 오송공장에서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CJ헬스케어 화합의 장'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CJ헬스케어 곽달원 대표는 기념행사에서 "월드 클래스 신약을 출시해 2020년 매출 1조원의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CJ헬스케어는 지난해 4월 1일 출범, 적극적인 연구개발(R&D) 활동을 펼쳐왔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코드명 CJ-12420)의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빈혈치료제)도 임상 1상에 들어가며 바이오의약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5월에는 충청북도 음성에 영양수액(TPN) 공장을 준공했다. 숙취해소음료 컨디션은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베트남까지 진출하는 등 시장역을 넓히고 있다.

CJ헬스케어는 출범 첫 해인 지난해 매출 3298억원과 영업이익 390억원, 당기순이익 279억원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아파트 '귀한몸'

저렴한 분양가·개발호재에 실수요자·투자자 모두 관심
자격·전매제한 등 유념…"단지 조성 초반 불편 감수해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며 가격 상승을 우려한 실수요자들과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공공택지 신규 분양 아파트에 주목하고 있다.

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실시한 미사강변리버뷰자이의 청약 접수 결과 총 497가구 모집에 1만1870명이 몰려 1순위 평균 23.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132㎡B는 3명 모집에 총 200명이 청약해 최고 66.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용 102㎡B타입은 35가구 모집에 1668명이 모여 평균 47.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에서 분양된 아파트 13개 단지 중 12곳이 3순위 내에서 마감됐다. 전체 92.3%가 순위 내 청약 마감된 것인데 평균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6.0으로 1순위 62.9 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올해 공급량 증가 추세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집 마련을 염두에 둔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교통·녹지 등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4월 이후 전국에서 분양예정인 공공택지 아파트는 115곳으로 총 9만614가구에 달한다. 이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77곳 5만8618가구다. 지방은 38곳 3만1996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공공으로는 서울 마곡지구에서 SH공사가 4개단지, 520가구를 8월 분양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2기신도시에선 4월 이후 연내 23곳 총 1만8613가구를 분양한다. 특히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진다. 이곳에서만 연말까지 9곳 657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이르면 상반기에 우남역푸르지오 630가구와 위례신도시보미 131가구가 분양에 돌입한다. 중흥S클래스 2300가구, 광교6차호반베르디움 446가구, 더샵 686가구 등이 광교신도시에서 4~5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이번달 롯데캐슬 파크타운 1076가구를 시작으로 연내 416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도 4월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있다.

여경희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공공택지는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와 분양가를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택지 분양은 일반분양과 공공분양으로 나뉘기 때문에 청약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사람이면 누구든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반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자격 및 전매제한이 까다로워 주의해야 한다.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청약할 수 있고 3년 이상 무주택기간이 있어야 한다. 전용 60㎡ 이하는 소득·자산 규모도 제한 받는다.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이 최대 6년에 달하며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3년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청약 시 5년간 재당첨에도 제한된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은 "공공택지 분양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2017년까지 없을 것이란 정부 발표에 따른 희소성 때문에 인기가 많다"며 "신도시 등 개발지구에서는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초반에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지하철 개통·도로 개설·학교 등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아무래도 상가시설은 아파트 입주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완비되기 때문에 불편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GS건설이 지난해 미사강변도시 A21블럭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현장 전경. /GS건설 제공

대림산업, 대림미술관서 에코백 페인팅 이벤트 벌여 대림산업 직원과 관람객이 식목일인 지난 5일 대림미술관에서 제3국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에코백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금강산리조트, 제주도·강원 고성서 할인 분양

주식회사 미봉이 창사 25주년을 맞아 제주도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휴양별장형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금강산 비치리조트' 회원권을 특별 할인 분양한다.

제주도의 '제주금강산 리조트'와 강원도 고성 바닷가 백사장변에 들어선 금강산 비치리조트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쉼터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가는 거품을 빼 실속패밀리형(53㎡) 395만원, 스위트형(99㎡) 580만원, 로얄스위트형(165㎡) 980만원이다. 완납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제주·고성 외 전국 8곳(설악·청평·도고·남원·나주6지리산·경주·부산·울진) 리조트를 정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소유권 등기제 실속형 패밀리 회원권은 선착순 100구좌 마감이다. 또 100명에게는 제주와 고성 리조트 무료 이용권 15매와 고성 비치리조트 해수사우나 이용권 30매를 제공한다.

신청금 입금 순으로 바닷가 객실을 배정 받아 등기를 진행한다. 신청금은 50만원이다. 문의)02-541-0113

/김학철기자

GS건설 '주택자체사업팀'신설 역량 강화

주택사업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GS건설이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 자체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GS건설은 지난달 말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부문 주택영업담당 산하에 주택자체사업팀을 신설하고 민간택지 부지매입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GS건설은 그동안 사업시행사가 별도로 있는 외주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여기에 주택자체사업팀을 통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중·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새로 만들어진 주택자체사업팀은 수도권·광역시 등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사업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해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부지매입 방법도 기존 사업장 인수, 직접 매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단계적·비밀 매입보다는 일괄·공개 매입 방식을 통해 사업을 투명하면서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GS건설 주택자체사업팀을 맡게 된 김영욱 상무는 "주택사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엔진 확보와 자체·도급·도시정비 사업의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주택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올해 저금리 기조로 신규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사업화가 가능한 도급형 사업과 이미 매입한 자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병행해 갈 계획이다.

GS건설은 지난해 총 11개 단지 1만4232가구를 공급, 과거 3개년 간의 평균 공급량과 비교 시 약 3배 이상 증가한 물량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질적으로도 높은 성과를 달성, 국내부문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선옥기자 pso9820@

한화건설, 이라크서 2조원 추가 수주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2조여원 규모의 신도시 소설인프라 공사를 추가로 수주했다.

한화건설은 5일 오후 4시(현지시간) 바그다드에 있는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별관에서 비스마야 신도시 사회기반시설(Social Infra)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총 공사금액은 21억2000 달러(2조3400억원)이며, 이 중 10%인 2억1200 달러를 선수금으로 수령한다. 한화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만 누적 공사 수주액 100억 달러를 돌파,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의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됐다.

이 프로젝트는 분당급 규모인 10만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와 연계된 추가 공사다. 신도시를 구성하는 필수 시설인 약 300여 개 학교를 비롯한 병원, 경찰서, 소방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다.

이번 수주를 통해 한화건설은 향후 제2, 제3의 비스마야 수주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이라크 정부는 전후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호 주택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옥기자

"원톱 주연 고집하면 출연 안 했죠"

영화 '스물' 흥행력 증명 김우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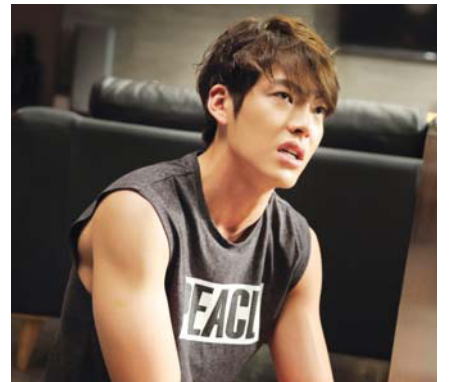
김우빈(26)은 영화 '친구2'(2013) '기술자들'(2014) '스물'(2015)에서 흥행력과 연기력을 모두 갖춘 배우로 입지를 다졌다. 느와르부터 액션, 코믹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한 그는 원톱 주연에 욕심낼 법하지만 "분량을 생각했으면 '스물'에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주인공을 해야 해'라는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기술자들'에도 출연했지만 분량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로서 좋은 작품에 참여를 하는 것뿐이죠. 차기작도 드라마, 영화 구분하지 않고 보고 있죠. 다양한 장르를 했지만 의도적으로 출연한 적은 없어요. 그동안 센 역할을 많이 했고 사람들은 '이젠 그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다고 처음부터 센 이미지의 캐릭터를 배제하고 싶지 않아요. 작품만 좋다면 더 강렬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스물'도 일정에 무리가 있었지만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하고 싶었죠. 만약 다른 배우가 치호 역을 소화하는 걸 봤다면 후회했을 거 같아요."

불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작품 참여하는 것 뿐

극중 노골적인 대사 많아 학생들 따라할까 걱정도

'스물'(감독 이병헌)은 갓 스무 살이 된 세 청춘의 이야기다. 김우빈은 섹드립을 즐기는 치호 역을 맡았다. 특히 치호의 명대사는 "너의 엉덩이에 내 XX를 비비고 싶어"다. 노골적이지만 관객은 폭소한다.

"난감했던 대사가 정말 많았죠. 가장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촬영한 건 '엉덩이' 대사였어요. 감독에게 준비한 걸 다 할 테니까 골라달라고 했어요. 귀여운 버전, 변태 같은 버전 등 많았습니다. (웃음) 12세 등급은 아예 포기했고요. 15세를 받기 위해 대사 수위를 낮추기도 했죠. 근데 실제로 남자들은 영화에서처럼 섹드립을 즐기지 않아요. 여자들도 야한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웃음)"

강하늘·2PM 이준호와 호흡을 맞췄다. 그는 이준호 팬들의 함성에 큰 힘을 얻었다.

"함께 개봉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이준호 팬들을 봤는데 공연을 보러 다니는 분들이다 보니 발성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처음으로 소리에 몸이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어요. 제 팬들이 주는 힘과는 또 다른 경험이었죠. 제 팬은 배려심이 정말 많아요. 제가 열심히 일 하게 끔 도와주는 원동력이죠. 부모님 다음으로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에요. '상속자들'(2013) 이후엔 누나 팬이 생겼어요. 저를 향한 각별한 애정이 느껴져서 든든해요. 가족처럼 언제나 제 편일 것 같거든요."

투어를 하면서 아시아 팬을 만난다. 출연했던 작품의 명장면을 따라하는 이벤트도 빼놓지 않는다. 그러나 '스물'에선 어떤 장면을 재현할 지 망설였다.

"드라마는 연기니까 하는 건데 팬미팅에서 재현하는 건 정말 오그라들어요. 특히 팬미팅을 담당하는 작가는 유독 일상 생활에선 안 할 법한 대사만 시켜요. '스물'로는 할 게 없죠. 했다가는 소송 걸릴 지도 몰라요. (웃음) 치호의 대사는 평소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대인사를 다니면서 가장 우려된 부분은 문제의 '그 대사'였어요. 학생들이 따라할까봐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요.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영화를 보러 오는 친구들이 눈에 밟힙니다.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주리라 믿어요."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tar bag

'연예가중계' 새 MC 됐어요

이다희가 KBS2 '연예가중계'의 새 MC로 발탁됐다. 소속사 측은 "이다희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여준 지적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MC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일지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이다희는 오는 11일 생방송되는 '연예가중계'에 MC로 첫 등장할 예정이다.

2015년 새로운 포카리걸

김소현이 포카리스웨트의 2015년 새 뮤즈로 선정됐다. 소속사 싸이더스HQ에 따르면 김소현은 최근 푸켓의 산호섬에서 광고 촬영을 마쳤으며 신규 광고는 4월 중순께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김소현은 4월 말 방송 예정인 KBS2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한다.

2년 만에 단독 콘서트

유리상자 **박승화**가 다음달 29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공원뮤즈라이브에서 2년 만에 단독 콘서트 '박승화의 뮤직 브런치'를 개최한다. 주최사 팝인코리아는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무대로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교감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접 프로듀싱한 앨범으로 컴백

걸그룹 **달샤벳**이 멤버 **수빈**이 전곡 프로듀싱한 미니 8집 '조커 이즈 얼라이브'를 들고 오는 8일 컴백한다. 이번 앨범은 수빈이 프로듀싱을 맡아 작곡가 심재훈·이수민과 함께 전곡 작사·작곡·편곡했다. 걸그룹 멤버가 앨범 전체를 프로듀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usical review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 드림걸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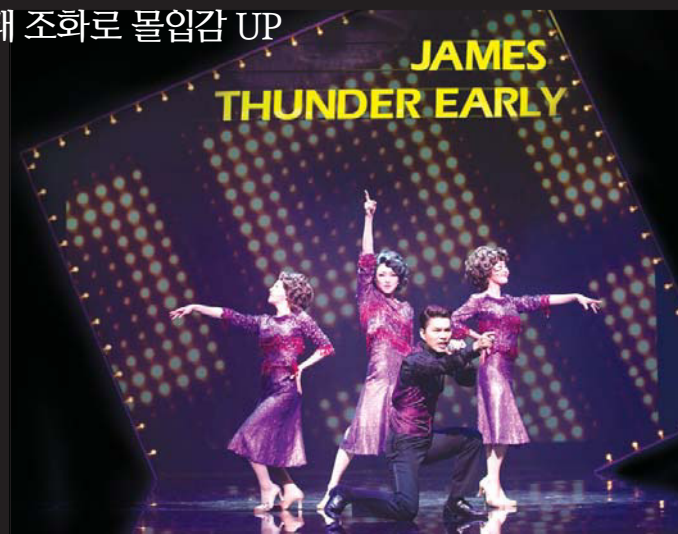
온몸으로 느껴지는 '소울'의 향연

거대한 LED 화면·600개 셀 눈길… 의상·안무·노래 조화로 몰입감 UP

뮤지컬 '드림걸즈'를 통해 '소울(Soul music)'을 이해할 수 있었다.

소울의 사전적 의미는 1950년대 후반 미국에서 나온 대중 음악 장르다. 그러나 소울을 몇 글자로 정의하기엔 그 예술의 깊이가 상당하다. '드림걸즈'는 느낌 충만한 네 여인의 음악과 꿈을 향한 열정을 이야기한다. 작품을 통해 '소울'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뮤지컬 '드림걸즈'의 모티브는 1960년대 전설의 흑인 R&B 여성 그룹 '다이애나 로스와 슈프림스'다. 흑인 음악이 배척되는 시대였지만 세 흑인 소녀들은 큰 인기를 얻는다. 그러나 팀 리드 보컬(에피 화이트 역)은 아름다운 외모와 백인 취향에 맞는 목소리를 가진 다른 멤버(디나 존스 역)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그룹은 와해된다. 이후 몇 명의 보컬리스트가 팀을 거쳐갔지만 결국 슈프림스는 1977년 해체됐다.

작품은 걸그룹 드림즈를 통해 슈프림스의 흥망성쇠를 고스란히 이야기한다. 거대한 LED 화면과 600여 개의 셀이 드림즈 멤버들과 함께 호흡한다. LED 화면엔 사전 촬영된 영상이 보여진다. 에피 화이트의 절망적인 상황과 디나 존스의 화려한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조각난 셀은 무대를 다차원적으로 만든다. 드림즈 멤버들의 꿈을 상징한다. 멤버들은 음악이 좋아서 뭉쳤지만 매체의 지나친 관심과 대중 입맛에 맞는 이미지대로 살아야 했다. 셀의 개수는 멤버들이 꿈에 다가갈수록 많아지고 무대는 풍성해진다.

의상과 안무, 노래가 조화롭고 극의 몰입감을 높인다. 넘버 '원 나잇 온리'는 R&B버전과 디스코 버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연예산업의 상술과 추악한 단면을 표현한다. 에피 화이트와 디나 존스의 듀엣 곡 '리슨'은 긴 여운을 남긴다. 두 사람의 우정이 '드림걸즈'의 감동 포인트다. 웃음 포인트는 곳곳에 있다. 특히 당대 최고의 R&B 스타인 제임스 썬더 얼리의 코믹 연기가 인상적이다. 관객은 내용이 전개될수록 제임스가 무대에만 있어도 웃음을 터트린다.

제대로 된 쇼 뮤지컬 '드림걸즈'는 5월25일까지 송파구 잠실동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된다.

부활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록밴드 부활이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부활은 다음달 16일 총 2회에 걸쳐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부활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연다. 이번 공연에서 '희야' '사랑할수록'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버 엔딩 스토리' 등 수많은 히트곡 릴레이를 선사한다. 리더 김태원은 부활의 역사와 에피소드 등을 들려줄 계획이다.

특히 현재 보컬 김동명의 서정적이면서도 파워풀한 무대는 물론 부활을 거쳐간 역대 보컬리스트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부활은 1대 보컬 김종서를 시작으로 2대 이승철, 3대 김재기, 4대 김재희, 5대 박완규, 6대 김기연, 7대 이성욱, 8대 정단, 9대 정동하 등 걸출한 록 보컬리스트들을 배출했다.

한편 이번 공연 티켓은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예매한다.

/김지민기자 langkim@

'분노7' '스물' 흥행 접전

'킹스맨' 관객몰이 지속 600만 돌파 눈앞

비수기로 침체됐던 극장가가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하 '분노의 질주7')과 '스물'의 흥행 접전에 힘입어 모처럼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분노의 질주7'은 개봉 첫 주말인 지난 3일 금요일부터 5일 일요일까지 3일 동안 90만8316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17만명을 넘어섰다.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한 '분노의 질주7'은 2013년 개봉한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보다 3일 빠른 흥행 속도를 보이며 시리즈 사상 최고 흥행 신기록을 예고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도 오프닝 스코어 6700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스물'도 개봉 12일째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스물'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주말 3일 동안 64만4492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관객수 220만1693명을 기록했다. 3일 누적 관객수 160만 돌파로 손익분기점을 넘긴 만큼 최종 흥행 성적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3월 한 달 동안 예상 밖의 흥행 열풍을 일으켰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 개봉 8주차에도 박스오피스 3위 자리에 머물며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 관객수는 591만을 넘어서 600만 돌파도 바라보고 있다. 박스오피스 4위를 차지한 '위플래쉬'는 누적 관객수 144만여 명을 기록 중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

류승범, 스크린 컴백… 고준희와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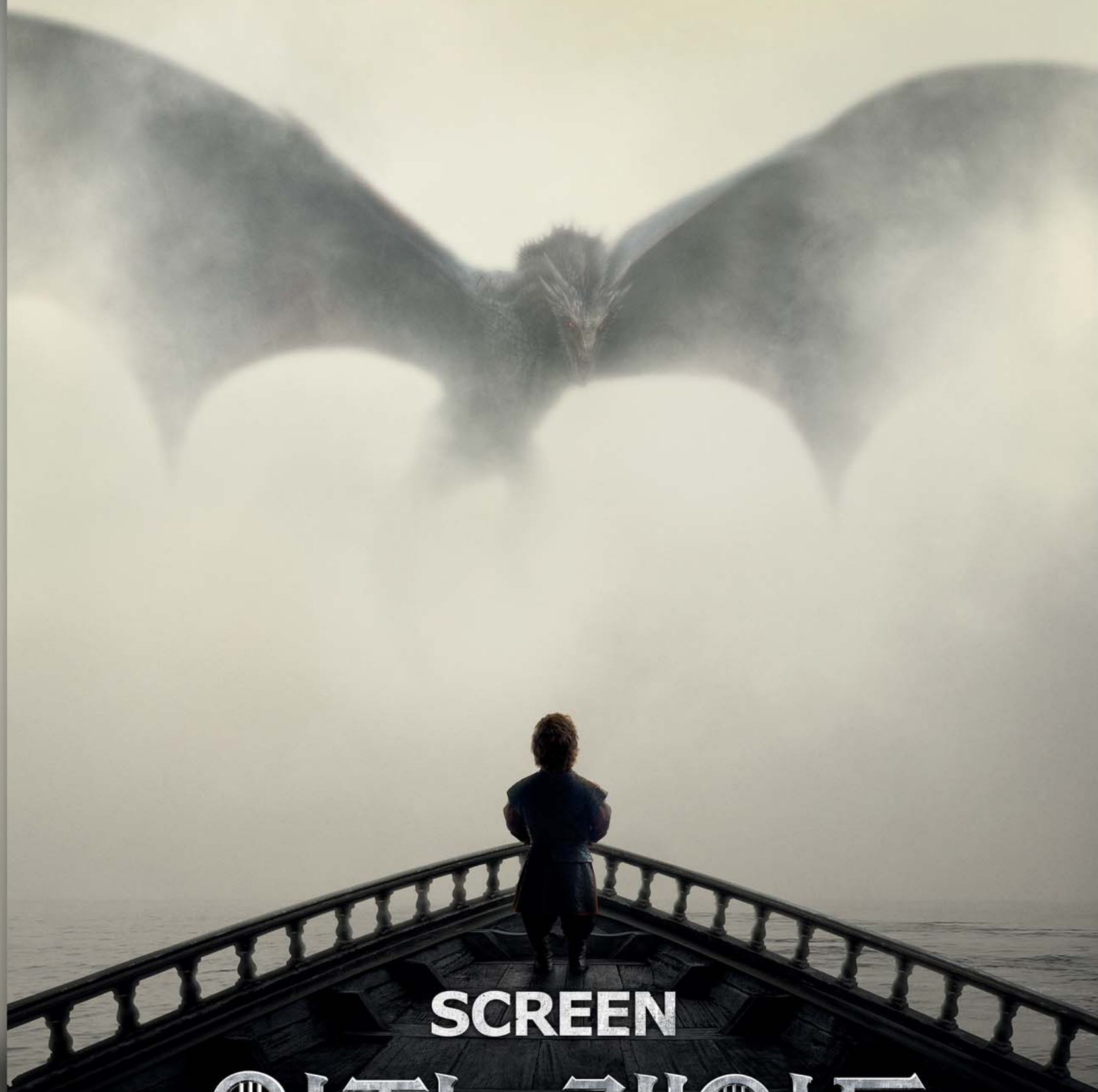
임상수 감독 신작 '나의 절친 악당들' 6월 개봉

배우 류승범의 스크린 복귀작이자 고준희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 '나의 절친 악당들'(감독 임상수)이 오는 6월 개봉을 확정했다.

'나의 절친 악당들'은 의문의 돈가방을 손에 넣은 지누(류승범)와 나미(고준희)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진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류승범은 잘난 척하지 않는 캐릭터인 지누 역을 맡아 '베를린' 이후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고준희는 착한 척하지 않는 나미 역으로 거침없는 매력을 선보인다.

영화는 칸, 베를린, 베니스 3대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는 임상수 감독의 신작이다. 류승범, 고준희 외에도 예능으로 주목 받은 방송인 샘 오취리를 비롯해 배우 류현경, 김응수, 정원중, 양익준, 김주혁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인문학과 쿡방의 만남 '요리인류 키친'

푸드멘터리 새 장 연 이욱정 PD "공영방송, 요리프로에 관심 가져야"

KBS 다큐 '누들로드' '요리인류' 이욱정 PD가 진짜 쿡방에 출사표를 던졌다.

6일 마포구 상수동에서 열린 KBS2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기자 간담회에서 이 PD는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많다. 그 중 내가 할 수 있는 건 인문학적 조미료가 들어간 방송"이라며 "체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 다큐 냄새가 있는 요리 방송이 될 거다. 평범하지만 지혜로운 레시피를 담으려 한다"고 관전 포인트를 소개했다.

이어 "영국 BBC 요리 프로그램은 짧다. 우리나라 요리 방송은 30~40분이며 여러 장치가 많다.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예능에 요리가 차용됐다"며 "10~15분 동안 요리를 보여주는 데일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싶었다"고 다른 쿡방과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요리인류 키친'은 '누들로드'(2008) '요리인류'(2015)에 나온 레시피를 소재로 한다. 방송은 요리법을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는다. 방송 시간이 짧은 이유는 콘텐츠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유통되는 매체 환경 때문이다.

이 PD는 "이 프로그램은 '요리인류'와 한 몸이다. 멀티채널로 즐길 수 있다"며 "요리에 대한 역사가 궁금하면 다큐멘터리를 보면 된다. '그때 봤던 요리를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 레시피가 궁금하면 검색해 제작진이 제공한 게시물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욱정 PD는 이날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공영 방송의 관심도 촉구했다.

그는 "KBS '가정의 요리' 이후 30년 만에 등장한 데일리 요리 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보다 더 흥분된다"며 "NHK, BBC는 요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요리 방송이야말로 공영 방송이 맡아야 한다. 먹을 거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 식탁 예절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영 방송이 잘 만든 푸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푸드멘터리의 새 장을 연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40분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KBS2 '요리인류 키친' 이욱정 PD. /KBS 제공

TV 하이라이트

예체능팀 vs 도전자팀 빅매치

◆ KBS2 '우리동네 예체능' 오후 11시10분

'예체능 족구팀'과 족구팀 공개 오디션에 참가하는 투지의 '도전자팀'의 정면승부가 펼쳐진다. 도전자팀에는 1대 1 대결에서 안정환을 제압했던 이형택, 최강의 공격력으로 에이스 양상국을 당황하게 한 서지석, 환상적인 '백스핀드롭 슛'을 보여준 박건형 등이 포함돼 있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를 예고한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과천 외국어 고등학교'편 마지막 이야기가 방송된다. 과천외고 영원한 라이벌 강용석과 전현무가 영어토론에서 대결을 펼친다. 완벽녀 하니는 숙제를 깜빡해 최대 위기를 맞는다. 다중이 강균성은 마지막 날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만다.

◆ tvN '오 마이 갓' 오후 8시40분

소수의 승자와 다수의 패자가 살아가는 경쟁 사회에서 1등만 대접받을 수 있는 걸까? 루저의 난이 시작된다. '실패를 즐기는 사람들' 모임이 전하는 성공 말고 제대로 실패하는 방법이 공개된다. 위너의 시대에 종말을 고한다.

◆ MBC '불굴의 차여사' 오후 7시15분

안하영(김빈우)은 김지석(박윤재)에게 제임스가 아들임을 밝히며 옥분(정영숙)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다. 차미란(김보연)의 식구들은 사우디로 출장 가 있는 오기훈(신민수)과 영상통화를 하며 애틋한 시간을 보낸다. /정리=이유리기자 yuril@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12회) 05 출동! 슈퍼윙스 25 내 친구 아서 45 신체가 튼튼!	00 하늘 놀이터 25 헬로 코코몽 40 헬로! 코코몽 2 55 곰디와 친구들(영어더빙)
19시	00 KBS 뉴스 7 30 이웃집 찰스	50 오늘부터 사랑해 (2회)	15 불굴의 차여사 (63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80회)	00 지파이터스 30 EBS 뉴스 50 극한 직업	10 곰디와 친구들(한국어)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35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50 몬스터 수학나라(영어)
20시	25 당신만이 내사랑 (97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1 대 100 자막방송	55 압구정 백야 (121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10 몬스터 수학나라(한국어) 20 스쿨랜드-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시사기획 창 55 숨터	00 블러드 (16회)	00 빛나거나 미치거나 (24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14회)	45 리얼극장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룸메이트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45 독립영화관 <이쁜 것들이 되어라>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발칙한 사물 이야기, 다빈치 노트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10 EBS 인문학 특강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비정상회담 (40회)		00 셰프의 야식 2 (6회) 30 셰프의 야식 2 (8회)			◆ 프로야구 18:30 넥센 vs 두산 (SPO TV+, SPO TV) KT vs SK (SKY TV) LG vs 한화 (MBC SPORTS+) 롯데 vs 삼성 (KBS N SPORTS, SPO TV2) NC vs KIA (SBS SPORTS, IB SPORTS) ◆ 축구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8:30 웨스턴시드니 vs FC서울 (iMBC, 네이버스포츠) 19:30 성남FC vs 광저우 푸리 (iMBC, 네이버스포츠)
19시	55 JTBC 뉴스룸	20 문제적 남자 (6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12회)	00 <극한직업> 목포 조기잡이		
20시	50 JTBC 뉴스룸	40 오 마이 갓 (27회)	00 오늘 뭐 먹지? (26회) 30 오늘 뭐 먹지? (29회)	00 아시아의 열대 2부 까로의 슬픈열대	00 엘렉트라	
21시	40 백인백곡 끝까지 간다 (23회)	40 식샤를 합시다 2 (1회)	00 올리브쇼 2015 (11회)	00 코스모스 (2회)		
22시			00 오늘 뭐 먹지? (51회) 30 오늘 뭐 먹지? (11회)	00 소셜 컨트롤 (5회) 30 소셜 컨트롤 (6회)	00 몬스터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39회)	00 식샤를 합시다 2 (2회)	00 올리브쇼 2015 (11회)	00 <우주시대> 우주의 숨겨진 보물		
24시	20 마녀사냥 스페셜 (86회)	20 현장토크쇼 TAXI (374회)	00 라면 플레이버 (1회) 20 샘&레이먼의 쿠킹타임 (13회) 50 샘&레이먼의 쿠킹타임 (14회)	00 <극한직업> 민어잡이	15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 3D	

KIA·롯데 '초반 돌풍' 무섭다

투타 조화 전문가 예상 뒤집어…"KT 상대 승리, 더 지켜봐야"

지난 5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왼쪽) 5일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두산전에서 만루포를 날린 롯데 강민호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가 개막 6연승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 역시 지난 주말 두산전을 쓸어 담으며 5승1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두 팀은 시즌 전 야구 전문가들로부터 중위권이나 약체로 분류됐던 팀들이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전문가들의 분석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승을 이어가며 시즌 초반 프로야구 열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KIA의 경우 개막 6연승으로 순위 싸움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입대, 이적 등으로 올 시즌 약체라는 평가를 받던 KIA는 새롭게 영입한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으로 선수단이 하나가 됐고, 윤석민의 합류와 최희섭의 맹타가 맞물리며 초반 눈부신 선전을 펼쳤다.

하지만 지난 주말 3연전이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막내 구단 KT 위즈와 격돌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KIA는 양현종·필립 험버·조쉬 스틴슨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을 갖췄다. 그러나 아직 4~5선발에 낙점된 확실한 인물은 없다. 임기준·임준혁·문경찬 등이 경쟁을 통해 확실한 입지를 굳혀야 한다. 임기준이 SK 와이번스전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문경찬이 KT를 상대로 선발승을 거뒀지만 신인급이라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롯데는 짐 아두치, 브룩스 레일리, 조시 린드블럼 등 용병 3명을 잘 뽑은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박종윤과 아두치가 차례로 부상으로 이탈한 와중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롯데 역시 레일리·린드블럼·송승준의 3선발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4~5선발에 문제점이 있다. 개막 2연전을 KT와 상대했다는 점도 KIA와 비슷하다.

"승부의 세계에서 약한 팀은 죽게 돼 있다. 약하면 집중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4월 싸움이 중요하다"는 김성근 한화 감독의 말처럼 4월 각 팀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따라서 이번주 각 팀의 물고 물리는 초반 순위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김세영, LPGA 첫 우승 아쉽게 놓쳐

마지막 날 보기 연발 역전패
세계 랭킹은 19위로 상승

김세영(22·미래에셋)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김세영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다이나 쇼어 토너먼트 코스(파72·6769야드)에서 열린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김세영은 단독 선두로 마지막 날 4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러나 드라이버 샷이 흔들리면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4번홀(파4)에서 김세영은 티샷이 왼쪽으로 크게 벗어나는 바람에 나무에 등을 대고 어렵게 페어웨이로 공을 꺼냈다. 그러나 세 번째 샷도 그린 옆 벙커로 빠져 네 번째 샷만에 그린에 오르면서 더블보기를 적어냈다. 3타차의 리드가 순식간에 1타차로 좁혀졌다.

6번홀(파4) 버디로 한타를 만회한 김세영은 전반에 버디 2개, 보기 1개로 1타를 줄인 루이스와 2타차를 유지하며 후반에 들어갔다.

루이스의 반격이 거셌다. 10번홀(파4)에서도 김세영과 나란히 버디를 잡은 루이스는 11번홀(파5)에서 김세영이 보기를 적어낸 사이 버디를 낚아 마침내 동타를 만들었다.

김세영은 12번홀(파4)에서도 티샷이 러프에 빠지는 바람에 다시 1타를 잃었다. 루이스는 두 번째 샷을 홀 1.5m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내며 2타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

김세영은 13번홀(파4)에서 4m짜리 버디 퍼트를 성공해 보기를 적어낸 루이스와 다시 동타를 만들었다. 하지만 워터 해저드를 끼고 있는 14번홀(파3)에서 나온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면서 다시 2타차가 됐다.

티샷이 좀처럼 페어웨이에 떨어지지 않아 러프와 러프를 오가며 고전한 김세영은 퍼터마저 말을 듣지 않아 15번홀(파4)에서 1타를 잃었다. 16번홀(파4)에서 나온 버디로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지만 17번홀(파3)에서 3퍼트로 다시 1타를 잃어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루이스는 마지막 홀에서 3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인 브리트니 린시컴(미국)과 연장전을 벌였다. 결국 우승은 린시컴에게 돌아갔다.

첫 메이저대회 우승은 아쉽게 놓쳤지만 대신 세계 골프랭킹 20위 진입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김세영은 이날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3.58점으로 지난주보다 3계단 오른 19위를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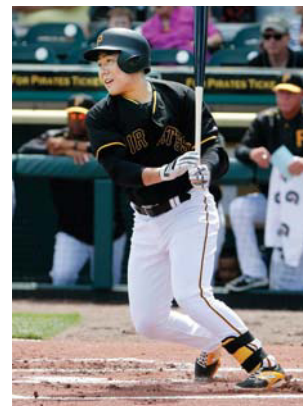
강정호 ML 개막전 선발 나선다

피츠버그 25인 로스터 합류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피츠버그의 개막전 25인 로스터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피츠버그는 6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일 펼쳐지는 신시내티 레즈와의 개막전에서 뛸 25인 명단을 발표했다.

클린트 허들 감독과 닐 헌팅턴 단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강정호는 예상대로 25인 로스터에 합류했다. 페드로 알바레스, 코리 하트, 숀 로드리게스, 조디 머서, 조시 해리슨, 닐 워커 등과 함께 내야수 7명에 포함됐다.

피츠버그는 25인 로스터 가운데 선발 투수 5명-불펜 투수 7명 등 총 12명을 투수에 할당했다. 선발진은 프란시스코 리리아노, 게릿 콜, A.J. 버넷, 제프 로크, 밴스 월리 등으로 꾸렸다. 불펜진에서는 한국 KBO 리그에서 LG 트윈스 소속으로 뛰었던 레다메스 리즈가 눈에 띈다. /장병호기자

손연재 "이틀 쉬면 괜찮아"

발목 부상으로 부쿠레슈티 월드컵 도중 기권을 선언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국가대표 선발전 등 추후 일정은 정상적으로 소화한다.

손연재 소속사인 IB월드와이드는 6일 "선수와 의료진의 판단으로는 이틀가량 휴식을 취하면 괜찮을 것"이라며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과 귀국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연재는 9일 귀국해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홈스, 연장 승부 PGA 첫승
최경주 마스터스 출전 실패

J.B 홈스(미국)가 연장 승부 끝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셸 휴스턴 오픈에서 시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와그너는 6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험블의 휴스턴 골프장(파72·742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1개로 8언더파 64타를 치고 최종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냈다. 조던 스피스, 존슨 와그너(이상 미국)와 동타를 이룬 홈스는 18번홀(파4)에서 연장 2차전까지 펼쳐진 승부 끝에 최종 우승자가 됐다.

최경주(45·SK텔레콤)와 박성준(29)은 나란히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50위를 기록했다. 이날 상위권에 들지 못한 최경주는 마스터스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한국계 미국인 존 허(25)도 이날 4언더파 68타를 치고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적어내며 공동 17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민준기자

패션 편집샵, 소비자와 어떻게 통했나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최근 3년 동안 패션계의 화두는 급변했다. SPA브랜드가 혜성처럼 등장했고, 패스트 패션 리테일링이 뒤를 이었다. 1년 전부터는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이 공존하는 멀티브랜드 편집샵이었다. 화두가 시장에 반영돼 안착하기도 전에 소멸됐다. 지금은 온라인 스토어의 오프라인화로 바뀌는 중이다. 한 예로 '스타일난다' 편집샵은 온라인 매니아의 지지에 힘입어 홍대에 오프라인 매장을 냈다.

편집샵은 새로운 게 아니다. 그 구조의 중심이 개별 제품(product)에서 머천다이징 기반으로, 이제는 B2C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한 것뿐이다. 이 진화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고객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느냐의 고민에서 기인된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트렌디한 편집샵은 어떤 매력으로 고객을 유인할까?

L'eclaireur는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편집샵이다. 매장은 총 5개가 있는데, 'L'eclaireur'로 불리는 명칭은 영어로 "The scout"라는 뜻으로 '무엇을 새롭게 발굴 한다'는 의미다. 편집샵이 상품과 소비자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조화를 이루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Excelsior Milano'는 식품관, 레스토랑과 악세서리와 의류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탈리아의 대형 편집매장이다. 이곳은 갤러리 > 의류매장 > 까페 > 북스토어의 동선을 골고루 갖췄다. 한 층을 가득 채우는 플로어 구조에서 탈피, 건물 전체에서 느긋하게 먹고 즐기고 이야기 하는 슬로우 쇼핑의 메카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야채와 식품까지 브랜딩되어 편집샵에 바잉 되고 있다. 소비자의 무의식 마저 가늠하고 소비취향의 미래를 예측해 공간구조, 컨셉, 캐릭터 설정까지 계획하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매장이 창조하는 진심이 담긴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소비자는 '공감은 OK, 조언은 사양'이라 말하고 있다. 그들의 지갑과 편집샵 상품 사이의 공간에서 채워질 그 무엇인가에 대한 디자인, 그 무형의 디자인에 편집샵의 내일이 달렸다.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5	8			2			
				3				
3	1			7		8		
8	6				5		2	
		7				4		
	9		4				7	8
	8			2			4	9
				5				
			8			7	6	1

					1		6	
				9	2	1		
4		1	3					9
		3		5			9	
7	9						3	6
	4			7		5		
8					7	6		5
		4	6	3				
	2		4					

스도쿠 정답

7	5	8	9	6	2	3	1	4
9	4	6	1	3	8	2	5	7
3	1	2	5	7	4	9	8	6
8	6	4	7	9	5	1	2	3
1	3	7	2	8	6	4	9	5
2	9	5	4	1	3	6	7	8
6	8	1	3	2	7	5	4	9
4	7	9	6	5	1	8	3	2
5	2	3	8	4	9	7	6	1

9	7	2	5	4	1	3	6	8
3	6	8	7	9	2	1	5	4
4	5	1	3	6	8	7	2	9
1	8	3	2	5	6	4	9	7
7	9	5	8	1	4	2	3	6
2	4	6	9	7	3	5	8	1
8	3	9	1	2	7	6	4	5
5	1	4	6	3	9	8	7	2
9	2	7	4	8	5	6	1	3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일은 많은데 수금이 안되서 걱정입니다
8월까지는 팍팍…사업 확장 자제해야

별사랑 남자 65년 1월 13일 음력 시는 모름

Q 올해 사업 운을 문의 드립니다. 65년생 남자로 음력 1월 13일 시는 모름니다. 소방업계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많아서 직원들을 더 채용 했는데 올 초부터 수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급여며 기타 사업전반에 경비를 분할해서 내보내기도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올해 사업 운이 어떤지 또 어떻게 잘 헤쳐 나가야 할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A 음력 3월이 지나면 주변상황이 팍팍하게 느껴지고 자금은 막혀서 힘들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가망이 없다고 스스로 진단할 것인데 조금 잘될 때 직원을 더 채용한 것의 결과라고 봅니다. 사주체가 크고 이재의 능력이 큰 사주는 아니니 8월까지 직원을 채용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지금부터 실행에 옮겨야만 8월지나 9월부터 소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탄하거나 나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사주상담을 한다고 떡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처세의 길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주상담을 할 때 태어난 시(時)는 시주(時柱)라 하여 시를 알면 미래는 좀 더 구체적인 추명을 할 수 있는데 시로서 중장년이후의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인관계나 재물과 관성(官星:직업관계, 승진관계)을 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망(羅網:그물을 침과 같은)으로 스스로 묶는 다는 암시가 있으므로 내심 속과 겉이 다를 염려가 있는데 이는 사기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걱정만 하기 보다는 사주의 기본구조에 재복(財福)이 있으니 하는 일이 신통치 않아도 신용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수주 처를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현재 사업 운이 극복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는 잘될 때 투자를 하거나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 손익분기점을 맞춰서 사업목적인 돈을 벌도록 해야 하며 과욕으로 확장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건강해 보이지만 비위가 약하고 근본적으로는 위장병을 다스리는 것이 유리하며 삼형살(三刑殺)이 내재 되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염려가 있음을 유의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7일 (음 2월 1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지금은 조금 이른 시기입니다. **60년생** 전업이나 개업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84년생** 먼저 정한 바를 관철하세요.

49년생 조금만 더 기다림이 좋을 듯 합니다. **61년생** 소중한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73년생** 심신이 고달픕니다. **85년생** 금전운은 길하나 지출이 있게 됩니다.

50년생 의존심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62년생** 누명이나 사기를 조심하세요. **74년생** 일찍 귀가하세요. **86년생** 긴 안목을 가지도록 하세요.

51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63년생** 현실적인 소망을 먼저 이루도록 하세요. **75년생** 작은 상처라도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87년생**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세요.

52년생 다 끝난 일이 다시 문제가 됩니다. **64년생** 작은 도움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마음이 잘 맞는 주위 사람과 상의하세요 요. **88년생** 친구들과의 약속은 미루는것이 길합니다.

53년생 좋은 운이 돌아오니 순리대로 처신하세요. **65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77년생** 주위의 유혹이 많은 날입니다. **89년생** 과욕은 금물입니다.

54년생 심기가 편치 못합니다. **66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도록 하세요. **78년생** 돈이 막히는 날입니다. **90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보세요.

55년생 냉철한 이성으로 오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7년생** 중요한 협상은 내일로 미루세요. **79년생** 자녀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90년생** 자기 발전을 위해 매진하세요.

56년생 큰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68년생** 강직하게 밀고 나가세요. **80년생** 노력을 닦은 만큼 결실이 맺어집니다. **92년생**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자신 있는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게 보이는 법입니다. **69년생**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81년생** 침착함을 잃지 마세요. **93년생** 분주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58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니 노력의 대가입니다. **70년생** 마음을 비우도록 하세요. **82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옵니다. **94년생** 과감한 변신이 필요한 때 입니다.

59년생 큰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71년생** 지금 하는 일을 유지해야 길합니다. **83년생** 사랑과 우정 사이, 가족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95년생** 원하는 것 중 작은 것은 이루어집니다.

변호사 실수로 실형 확정

항소이유서 제 때 안내 합의하고도 감방행

"제 변호사들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실형이 확정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까지 했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침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모(30)씨.

지난달 김씨는 항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 측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오 모, 정 모 변호사 등 김씨의 변호인들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1심의 형이 확정됐다는 것.

국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고 해도 국가의 책임을 감안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사선 변호사인 경우에는 기한을 연기해 주지 않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1년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김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다 피해금을 변상한다고 약속해 내심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도 기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꿈은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김씨는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김씨는 "합의서를 받은 상황이라 집행유예가 거의 확실했다"며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한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억울해 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형을 확정한다.

김씨는 서둘러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미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응하고 항소를 하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기록수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

김씨는 항소장을 제때 제출했지만 변호사들의 실수로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을 13일 지나 제출했다. 수임료를 내고 고용한 자신의 변호사가 되레 항소심에서 변론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게다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피고인은 차질 없이 항소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어 김씨의 속이 더 쓰릴 수밖에 없다.

해당 법률사무소측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합의를 하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법률사무소를 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1심 변호사 수임료로 3000만원이 나간 것도 부담이지만 해당 변호사의 말도 안되는 실수로 실형전과가 생긴 것은 용납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

본지는 김씨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해당 변호사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법률사무소는 오씨와 정씨 두 변호사가 꾸린 법률사무소다. 오 변호사는 2000년부터 부산·광주·서울동부지검 등에서 일한 검사 출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제출기간을 넘어 항소이유서를 내면 항소를 받아주는 일이 없다"며 "제출기간이 지나도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주면 법절차를 무시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청소년들과 안전점검 체험하는 김희정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부산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부산항만공사와 '청소년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들과 안전점검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 누명' 납북어부 무죄

대법, 35년 만에 선고

모진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재심에서 고 배일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969년 한 차례 피랍됐다 귀환한 배씨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실상은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서울고법은 작년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

"군산 백석제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 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 백석제 일대에 설립할 군산 전북대병원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

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를 전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관련 기업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른 합법적 기업 활동이 향후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경영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15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

대형 로펌들은 '뉴스레터' 등의 형식으로 기업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내부 교육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로펌 관계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행사를 열고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이 김영란법상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며 조언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B 로펌 관계자는 "기업 부패 사건에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강의하는 등 김영란법 관련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헌법소원 심판도 이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C 로펌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 중"이라며 "로펌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강조해 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유선준기자

서울 자치구 재정난속 공무원 수당 7천억 배정

서울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공무원 수당 예산은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만 약 7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 내역을 보면 총 액수는 6966억원에 달한다.

직군·직렬·직급을 망라한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는 총 3만574명으로, 올해 직원 1명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수당 항목별로는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1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7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된 '가계보전수당'은 439억원,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은 207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수당 총 예산이 3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구(각 302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4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수당 총 18가지 중 창안상여금과 자진퇴직수당 2가지를 제외한 16가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선준기자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